



## 박근혜 대통령, 제65주년 국군의 날 축하

박 대통령은 10월1일 제 65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육군장병과 내의 귀빈, 국민과 함께 축하했다. 또 참군 이래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19만 5,306명의 순국장병에 경의를 표하면서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국군 장병들의 기상과 패기가 자랑스럽다며 치하했다.

## 축 '한국 각 교단 총회, 정체성회복과 이단척결'

WCC부산총회, 동성애, 동성혼, 세습, 세금반대, 이단척결 다짐

지난달 예정활동을 비롯 통합, 백석, 대신, 합신, 고신 등 주요 교단은 성 총회를 마쳤다. 예정활동은 신임총회장 안명환 목사(수원명성교회)는 "화합과 개혁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교단의 정체성과 신뢰성을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겠다"는 소감을 피력하고, 한기총 탈퇴는 안하는 것으로 결의하고, WCC 공동선언문 및 다량방 관련 건은 5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단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영혼 살리는 일에 힘쓰겠다고 했다.

예정통합 신임총회장 김동엽 목사는 "선교 128주년을 맞는 우리 한국교회가 WCC 총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참



합동 총회장  
안명환 목사



통합 총회장  
김동엽 목사



백석 총회장  
장종현 목사



합신 총회장  
이주형 목사



대신 총회장  
최순영 목사

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며 "전례 없는 부흥을 일으킨 기도 영성을 세계 교회가 주목하고 있고, 이번 부산 총회는 말씀과 기도가 함께하는 거룩한 총회가 될 것"이며 "교회를 어렵히는 사이버 이단을 척결하고 역사적으로 자랑스러운 총회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짐"했다.

예정백석 장종현 통합총회장은 WCC 부산총회 개최를 지지한다면서 이는 교단차

원이 아닌 총회장 개인적이며 WCC 부산총회협력은 내 신앙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백석과 개혁파의 통합은 "어떻게 분열을 극복할 것인가, 기득권을 버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품는 것만이 해답"이라며 "삼위일체를 부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면 모두 하나될 수 있으며, 앞으로도 백석교단은 연합활동에 앞장설 것"이라며 소신을 피력했다.

예정합신 신임총회장 이주형 목사는 취임소감에서 "교단의 정체성 재확립과 교단의 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교회가 이단 사설과 WCC총회 부산개최로 인하여 상반된 이념으로 매우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합신은 개혁주의 신앙과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의 정체성을 재확립해 존엄한 한국교회를 바로 세워 나가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을 다짐했다. 그러면서 주 총회장은 "대외적인 활동을 통하여 교단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이다.

한편 합신교단(총회장 이주형 목사)은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박위근 목사)에 정식 가입을 결의했으며, 한교연은 크게 환영했다.

대신총회는 제48회 총회에서 당선된 신임총회장 최순영 목사는 "교단발전을 위해 안정적인 재정구조를 통해 3천 교회에서 1만 교회로 부흥 성장하는 교단이 되는데 힘을 것이며, 한국교회가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일에 적극 앞장설 방침이다.

아울러 한기총과 한교연이 하나가 되도록 적극 나서겠다며 소감을 피력했다.

### 사설

## 제65주년 "국군의 날" 만세!!

대한민국 국군은 헌법 제 5조에 장해 진 바에 의거 국제평화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며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여 헌법 제39조가 명하는 바에 따라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지는 국민의 군대이다.

대한민국 국군은 해방직후 국방경비대(1946.1.11)를 거쳐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국군조직법(1948.11.30)에 의거 장교 625명, 사병 9,936으로 8개 사단을 편성, 전국 각도에 주둔 출범한지 1년 반 만에 김일성의 6.25 남침으로 3년간 전쟁을 통해서 크게 성장했다.

6.25 전쟁 기간 중 열세한 병력과 장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군기와 충천한 사기를 바탕으로 애국의 기상과 멸적(滅敵)의 투혼을 발휘하여 세계 전사(戰史)에 유례를 찾기 힘든 혁혁한 전공을 세웠는가 하면, 1950년 10월 1일 38선을 돌파, 용평을 떨치기도 했다.

38선 이북 실지회복과 조국통일의 염원을 담아 이 날을 기려 '국군의 날'을 제정, 오늘 날 건군 제 65주년 기념일에 이르고 있다. 대한민국 국군은 4.3 사태와 여수순천반란사건 등 참군 초기 상처를 안고 김일성 남침 6.25 전쟁에서 적수공권(赤手空拳), 피 끓는 애국심과 국토방위의 사명감 하나로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국가안보와 국가발전에 헌신함으로써 오늘의 발전과 번영의 밑거름이 됐다.

영육이 점철 된 65개 성상에 국군이 겪은 시련과 고통 또한 적지 않았다. 김영삼에 의한 군내 사조직 해체를 빚자한 군 모욕 및 비하, 김대중에 의한 자위권 제약과 복귀군 공격에 대한 정당방위 부인, 노무현에 의한 주적개념(主敵概念) 박탈의 수도를 겪기도 했다.

이러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우리 국민의 전통적 대군애호사상이 퇴색, 복귀사주를 받은 중북반역 주사파들에 의해 '미제용병(美帝傭兵)'으로

비하 매도 당하는가 하면, 손가락을 잘라 가면서까지 군 입대를 기피하는가 하면, 군복무기피수법도 천태만상으로 발달했다.

그런 가운데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등 군복무 의무 면탈자들이 대통령이 되어 60만 국군의 통수권자가 되고 상당수 병역미필자가 국회의원이 되어 거들먹거리고 입법 사법 행정 각부와 공공기관은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각계 각층이 병역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

기피자 천국이 됐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군은 영육의 세월을 넘어 비약적 발전을 거듭, 소총에서 잠수함과 제트기, 미사일까지 우리 손으로 만든 무기와 장비를 가지고 250km 휴전선과 동서해 NLL을 비롯해서 조국의 하늘과 바다와 육지를 튼튼하게 방위, 물샐틈 없이 경계하고 있다.

월남, 아프간, 이라크 참전에서 용맹을 떨치고, 중남미와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에서 UN 평화유지군으로 성가를 높이면서 인도양 해상에서 해적 퇴치에 나서서 등 대한민국 군의 무대는 오대양 육대주로 뻗치고 세계평화와 조국 수호에 전념 매진하느라 영일이 없다.

대한민국에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지만 너와 나 나라 지키는 영광에 살았다."는 진짜사나이 국군장병 여러분! 그대를 덕분에 부모 형제와 5,000만 국민 모두가 오늘도 편안하게 잠잠을 이뤘다. 제 65주년 국군의 날 만세! 국군 만세!! 대한민국 만만세!!!

# 조강수목사 (한국교회 부흥을 위한) 333 중보기도 운동

## 할렐루야!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인생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인생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CBS TV 비전특강을 인도하는 조강수 목사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국교회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 ■ 333중보기도 운동이란?

3. 3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3. 3백명의 기도는 용사처럼
3. 3분간 합심기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 운동

### ■ 동참하는 방법

성도님들의 삶속에 기도가 필요할때 즉시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예)○○교회 ○○집사입니다. 우리 자녀가 수술을 준비 하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이름과 본인이름은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 보내주신 문자내용은 전 중보기도 회원에게 문자로 전달 됩니다.
- 문자내용을 받는 즉시 전 중보회원은 3분간 장소구애없이 합심으로 문제해결을 위해서 기도 할 것입니다.
- 중보기도 신청번호(010-9300-0695)이곳으로 사연을 보내시면 됩니다.
- 중보기도 회비(월5천원) 계좌번호: 농협301011-94-81821 예금주: 영광교회
- 입금하시고 문자주시면 바로 회원으로 등록이 됩니다.
- 기도가 필요할 때마다 바로바로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조강수 목사

- 영광교회 당회장
- CBS TV 비전특강 강사
- CTS TV 빛으로소금으로 강사
- 웨신총회 신학교 이사장
- 중보기도 사역원장







# 그교협 제78차 회장에 김탁기 목사 연임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 세계교회를 향한 든든한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는 협의회가 되길 소원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이하-그교협)은 지난 23일~25일까지 충남 천안 명문그리스도의교회와 온양관광호텔에서 제78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현 회장 김탁기 목사의 연임을 확정했다.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요7:38)는 주제로 명문그리스도의교회(임종원 목사사무)에서 김점용 목사(경인지방회장)인도로 1부 개회예배가 시작되어 흥근배 목사(충북지방회장)가 기도, 서상열 목사(호남지방회장)는 성경 마 26:36~46절을 봉독하고, 본교회 성가대의 특송이 있는 후 회장 김탁기 목사는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최제봉 목사(그교협교역자회장)의 축사가 있는 후 협의회장 김탁기 목사는 장성영 목사(직전회장), 김분태 장로 등에게 공로패를 증정하고, 4명에게 개척교회 격려패를, 12명에게 신임지방회장 축하패를, 홍승현 권사(연합여전도회장) 전국대회 및 협의회 협조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어서 증경회장 전주섭 목사의 축도와 상임총무 엄만동 목사의 광고가 있었다.

이날 회장 김탁기 목사는 ‘회원정신을 계승하고 한국교회의 위기 속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그교협은 차기 사업계획 수립 및 오는 2016년 세계그리스도의대회 준비



를 점검하고, 교단 발전에 전력을 쏟을 것”을 선언했다. 그교협 회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회장에 재추대된 김탁기 목사는 “이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비전을 품고 있다. 분열과 위상 추락으로 선교의 길을 잃은 한국교회를 위해 ‘성서로 돌아가자’는 우리의 구호처럼 초대교회

의 역사를 보여주어야 할 때가 됐다”며 “그리스도의교회를 더욱 사랑하며 부흥시켜 나아가 한국교회를 위해 회원운동을 부르짖고 실천하여 세계교회를 향한 든든한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는 협의회가 되길 소망한다”며 앞으로의 비전과 소임을 피력했다.

또한 그교협은 기아대책과 MOU를 체결하는 안건을 받아들여 추수감사절과 성탄절 캠페인을 통해 북한 섬김의 프로젝트를 전개한다고 밝혔다.

한편 그교협 엄만동 상임총무

는 그교협은 WCC 부산총회 개최, 동성애 문제, 세습문제에 대해 개인적으로도 반대하지만 교단차원에서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 제78차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김탁기 목사, 부회장 신봉수 목사, 임종원 목사, 김중부 장로, 상임총무 엄만동 목사, 서기 설상문 목사, 부서기 황환호 목사, 회계 김용강 목사, 부회계 박영우 목사, 회의록서기 정경립 목사, 부회의록서기 권상훈 목사, 감사 김용철 목사, 공창호 장로 등이다.



## 남현교회 전교인 명랑운동회로 화합의 한마당!

대한예수교장로회 남현교회(이춘복 목사사무)는 10월 3일(목) 오전 10시 서울시 구로구 부일로 893 온수초등학교에서 남현교회 전교인 명랑운동회를 열고 오후 4시까지 열린 응원과 운동회로 전교인이 화합의 장이 되었다.



이날 오전 10시 담임 이춘복 목사의 인도로 개회예배가 드려지고, 국민체조로 시작된 체육대회는 청군 백군으로 팀을 나누어 1. 박 터트리기, 2.카드 뒤집기, 3.유치부 릴레이, 4.중고등부 축구, 5.6인 기차 릴레이, 6.공 굴리기, 7.진

격의 슬라이딩, 8.줄다리기&줄넘기, 9.코믹 릴레이, 10.열정 릴레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열정 넘치는 명랑운동회로 화기에 애한 한마당이 되었다.

이날 남현교회 성도들이 순수정성을 다해 준비한 육개장과 푸짐한 반찬과 과일 등으로 전 성도들이 만끽하며 기쁨을 같이 했다.

결국 청백전으로 열린 응원전과 성도들의 열기 넘치는 명랑운동은 청군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아을



러 시상식과 행운권 추첨으로 성도들에게 상품과 선물이 전달되고 담임 이춘복 목사의 격려와 기도로 막을 내렸다.

한편 남현교회 전교인들은 운동회를 마치고 가지고 온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고 또한 온수초등학교 곳곳에 널려 있는 쓰레기를 줍는 등 기독교인으로서 모범을 보였다.

## 예장개척 제98회기 총회장에 최현식 목사 승계

부총회장에 김정열 목사(뽕엘교회)가 당선됐다



의 축도로 마쳤다.

이어 증경총회장 윤 관 목사의 집례로 성찬예식을 거행하고 기도예 정석진 목사(부산노회장), 성찬위원에 최경모 목사, 심용택 목사가 맡았으며, 집례자의 축도로 마쳤다.

개척총회는 총회장 최광욱 목사의 사회로 강성희 목사(경전노회장)가 기도하고 98회 회무처리에서 임원선거를 갖고 다음

과 같이 임원을 선출했다.

◇총회장 최현식 목사(공덕교회 원로), ◇부총회장 김정열 목사(뽕엘교회), ◇서기 조재호 장, 성찬위원에 최경모 목사, 심용택 목사가 맡았으며, 집례자의 축도로 마쳤다.

## 예장(호헌) 98회기 총회장 장완준 목사 선임

1000교회 운동본부출범! 교단성장 하는데 주력

예장총회(호헌)은 지난 9월 23일 제98회 정기총회를 성남 영복교회에서 269명의 총대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장에 장완준 목사 등 신임원진을 선출하였다.

이날 열린 제98회 정기총회에서 총회장 장완준 목사는 (요 12:23~33) '하나의 밀, 예수'라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죽은 밀알이 되기 위해서는 가지와 결별하여야 한다면서 우리 모두 작은 밀알이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자고 하였다. 이어 총무 도용호 목사의 광고 후 증경총회장 여원희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제2부 성찬식은 증경총회장 류한상 목사의 집례와 제3부 회무처리가 개최되고, 임원선거 후 총회헌법채 수정안을 발간하기로 하고, 안건으로는 총회 1000교회 운동본부 조직(본부장 총회장)하였다.

신임총회장에 당선된 장완준 목사는 교단이 양적과 질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총회원들의 자긍심과 비전을 성취할 수 있도록 섬김을 통해서 총회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교단산하 지 교회들이 변화되고, 발전해야 한다며"지 교회가



살아야 교단이 살고, 교단이 살아야 한국교회가 산다, 외적으로는 교단 위상확립, 내적으로는 교단의 정체성회복'을 위하여 힘쓰겠다고 했다.

장 총회장은 또 교단이 외적으로는 해외선교는 물론 교회연합과 일치 운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겠다고, 신앙과 신학사상이 같은 교단과의 강단교류 등을 적극추진, 변화하는 교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한기총을 비롯한 연합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모든 사업에 적극 참여, 한국교회 성장을 위해서 기여하겠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이제 교단 설립 50주년을

보내면서" 한국교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총회 일선교회운동을 더욱 확산시켜 교회 성장시대를 열어 금년을 호헌총회의 위상확립과 교단의 정체성회복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98회기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총회장 장완준 목사, ▲부총회장 양연길 목사, ▲서기 여정택 목사, 부서기 신상희 목사 ▲회의록서기 윤국희 목사, 부회의록서기 윤중성 목사 ▲회계 구한나 목사, 부회계 김병준 목사 ▲총무 도용호 목사 ▲감사 정진만 목사, 유동열 목사.

## 대한예수교장로회(개척)총회 대한노회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전하는 노회’



장 한국 목사  
(주시랑교회)



오상열 목사  
(송리교회)



반민규 목사  
(백호살롱교회)



박명자 목사  
(도원생수교회)



유은주 목사  
(지주교회)



개척 총회 가입

노회장 장한국 목사 외 임원일동 배상

대한노회

473-080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748 대림프라자(고흐7층)  
☎ 031) 424-7612, H.P 010)4436-7060

대한예수교장로회

주사랑교회

표어 : 새 천년을 새 소망으로 새롭게

2013년도 목표 : “온 세상을 진리의 빛으로”

예배시간안내

| 예배      | 시간       | 예배      | 시간        |
|---------|----------|---------|-----------|
| 주일 대 예배 | 낮 1시     | 주일학교    | 오전 9시     |
| 주일저녁예배  | 오후 2시    | 학생회     | 토,오후 5시   |
| 수요예배    | 오후 7시30분 | 청년회     | 토,오후 6시   |
| 새벽예배    | 새벽 5시    | 여전도구역예배 | 금,낮 11시   |
| 금요철야예배  | 밤 9시     | 남전도구역예배 | 매월토,저녁 6시 |

담임 장한국 목사  
본지 상임이사

•선교사 : 김경자  
•강도사 : 장정훈 이진영,  
•전도사 : 장성철,  
•반주자 : 한진경, 한송이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금춷대교회

건강하고 보수적인 신앙을 갖게 하는 살아있는 교회

선교에 중점을 두는 교회!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우 473-080]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748 7층  
☎031)424-7612[교] H.P 010-4436-7060 홈페이지 : http://jlcn.kr



## “복음상담실” 특강 (7)

## 하나님의 넓은 품에 안겨....

0자매는 어느 권사의 딸로 현재 심한 우울증에 걸려 사람을 만나기 꺼려하며 교회 출석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가족으로부터 막대한 돈을 끌어 들여 사업을 했는데, 일이 잘못되어 보증을 서준 형제들의 집까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되었다'는 따가운 눈총을 견딜 수 없었고, 결국 심한 자학증세와 함께 사람을 기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인지 척추 디스크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였고, 안수기도도 받아 보았으나 병은 더욱 악화될 뿐입니다. 극도로 약해진 지금은 목사님과 의사조차 불신하여 치료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0자매를 도울 수 있을까요?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실패와 좌절은 누구나 예외 없이 겪는 필연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0자매는 먼저 모든 것이 내 탓이라는 자학증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의도적인 죄라면 죄책감으로 인한 두려움은 당연하겠지만, 잘해보려던 일의 실패는 하나의 시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련을 통해 인간은 자신의 무력함을 자각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련을 이겨내지 못하면 마귀의 탓에 걸려 좌절감에 빠져 극단적인 경우 자살로까지 치닫는 울무에 빠지게 됩니다. 어려움을수록 정신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물질만능주의가 만연한 사회, 유산을 빨리 물려받고자 부모를 살해하는 자식, 아버지와 돈내기 고스톱을 치다가 패를 속였다고 두들겨 팬 못난 아들의 이야기... 남의 나라가 아닌 우리나라에서 버젓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로 사람 사이의 정(情)이 식어져 버리고 이기주의가 만연한 사회의 한 단면입니다. 인간(人間)이라는 한자어는 '사람 사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 중에서 가장 깊고 핵심적인 것이 바로 가족관계입니다. 0자매가 처한 현재의 모습은 본인뿐 아니라 주변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 특히 가족에게는 더없이 큰 아픔과 상처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물질은 인생의 필요조건은 될 수 있어도 인생의 충분조건은 될 수 없습니다. 물질에 의한 잠시 잠깐의 어려움은 이겨낼 힘이 있어도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것은 치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하고 가난한 심령 위에 다가오십니다. 자매의 쓴 실패를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기를 돌로 치고 침을 뱉고

십자가에 못박는 이들에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고 하신 예수님의 그 넓은 품에 안기십시오. 예수님께 나아가 그 아픈 가슴을 다 털어놓고 부르짖어 보세요. 그러면 자매의 마음에 평안이 밀려올 것입니다.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 것입니다(잠17:22).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사람을 멀리하고자 하는 피해의식은 자매뿐 아니라 가족들의 마음에 또 다른 상처를 남게 됩니다. 또한 신자들로 구성된 가족들로부터의 불신감 때문에 목사까지도 기피하는 모든 관계의 단절은 자매의 우울증을 더욱 가속화시킬 뿐입니다. 평안에 관련된 찬송가를 많이 듣고 부르세요. 성경 말씀 또한 위로와 연약한 자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편과 아가서 등을 많이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든 무너져 버린 관계에 대한 신뢰감을 다시 쌓으십시오. 모든 사람이 자매를 버릴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변개치 않으신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자매 스스로도 자기를 인정하고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박경혜 박사  
영성신학원상담학과수

## 황성주 박사의 "3박자 건강" (49)

## 스트레스의 이해!

“일을 사랑하는 긍정적인 태도로 스트레스 극복”

스트레스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건강을 해치는 스트레스요, 하나는 건강에 유익한 스트레스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트레스하면 나쁜 스트레스를 떠올리게 되나 스트레스의 정체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즉 ‘있어서는 안 될’ 대상요만 여기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의 내적 성숙을 위해 스트레스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가 되기도 한다.

문제는 스트레스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에 대한 인간의 태도와 반응에 있다. 탐험자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려움과 고통은 항상 따르기 마련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적당한 스트레스가 필요하다. 나뭇바는 바닷물이 있어야 균형을 유지한다. 트럭은 앞맛은 적재량이 있을

때 제 속력을 낼 수 있다. 인간은 몸과 마음이 감당할 수 있는 적절한 긴장이 유지되어야 몸이 민첩해지고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통합기능이 원활해진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스트레스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합리적으로 대처해야 할 좋은 기회인 셈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이나 관계를 자신의 능력에 연관시켜 깊이 연구할 계기가 된다.

건강을 해치는 스트레스를 유익한 스트레스로 전환시키려는 결연된 의지가 무엇보다 요구되는 시대인 것 같다. 모든 스트레스는 개인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서 스스로의 내적인 변화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 환경이나 근무조건 등 개인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대하는 사람에게는 스트레

스가 나쁜 영향으로만 작용하지 않는다. 그는 열심히 일할수록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스타일이다. 그는 높은 성취의욕과 비전이 충만한 사람이다.

선택은 둘 중 하나이다.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는지 일의 내용을 바꾸든지, 순환근무나 전직이나 전업을 고려할 수 있다. 지방근무나 해외근무를 자원할 수도 있다. 특히 경영자의 경우, 생산성 향상이나 노사분규 예방의 차원에서 근로자의 스트레스 관리에 깊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인생은 사랑하는 이의 것이다. 될 수 있으면 자신의 일을 사랑한다. 즐겁게 하는 일은 스트레스가 되지 않는다.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길만이 스트레스의 거친 세파를 헤쳐쳐 살아내는 최고의 건강 비결이다.



황성주 박사

## 다니엘서 5장 강해 (13)

## 성령을 훼방하거나 알고 지은 죄로 인해 사함 받지 못할 부분들

마가복음 7장 34절에도 바로 ‘열리리’는 말로 하실 수도 있는데 ‘에바다’라고 하시면서 별도로 에바다라는 말의 의미를 해석해 주셨다. 예수님과 함께 된 자는 에바다라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 본문의 ‘메네 메네 데켈 우바르시노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종, 하늘에 속한 자는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영원한 생명 안에 사는 자라면 이 글을 읽고 뜻을 알 수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힌바 된 자로서(엡2:6), 하늘 문화와 하나님의 사상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쓰신 글과 그 내용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앉힌바 된 자가 아닌 세상나라에 속한 육적인 신자는 전혀 읽을 수도, 해석할 수도 없는 것이다.

5:26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메네’는 아람어의 수동 분사형 단어로써 그 의미는 ‘수’를 세다, 수를 헤아리다’라는 뜻이다. 메네를 두 번 반복해서 쓴 이유는 세고 세어보니 이젠 그 왕국이 끝이 왔음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를 세우시고 벨사살도 왕위에 세웠다. 그런데 벨사살왕을 해이리고 해이러보니 그의 죄악이 짙다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바벨론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대로 그 기한이 있어 지내고 있는 중에 벨사살왕을 해이리고 해이러서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부분이 나 믿음으로 한 톨의 열매라도 맺은 것이 있으면 그 기한을 연장시킬 수도 있지만 아무리 해이러 봐도 악이 가득 차서 더 이상 기회를 줄 수 없다는 말씀이다.

우리로 예외일 수는 없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해이리고 해이릴 때 우리의 모습에서 무엇을 찾으실 수 있을까요? 만일 우리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목 배임을 받아 순교하기까지 주님만 의지한다면 좋은 측면에서 해이리는 것이 된다.

순교한 자들에게는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 흰 두루마기를 주셔서 받가지 다 가리게 하신다. 이는 둘째 사망의 해를 제거해 준다는 말씀이다. 둘째 사망의 해란 예수 믿고 믿음생활을 잘 한 성도들도 마태복음에 ‘인자를 거역한 자는 사함을 받지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은 금세 나 내세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처럼 성령을 훼방하거나 알고 지은

죄로 인해 사함 받지 못할 부분들이 있는데 이는 그 생활만큼 불타지고 다시 회복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의 죽는 것을 귀히 보신다고 하셨다. 신앙의 절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죽음을 맞이했다면 그에게 무엇을 더 줄 것이 없을까 하며 해이리고 해이러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부분이 있는 것을 순교자들에게는 이것까지도 깨끗하게 덮어서 정결케 해 주시는 역사이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해이리고 해이리신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면서 때로는 책망도 하시는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귀히 받고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고 믿음으로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 지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고, 이와 반대로 벨사살왕과 같은 망령된 행실로 빠져서 악이 짙은 것이 해이러지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게 되는 것이다.

5:27 데켈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뵈었다 함이요

‘데켈’은 ‘저울질하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저울질하는 이유는 사람의 중심을 달아보기 위함이다. 벨사살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하늘나라에 속한 중심은 하나도 없고 세상에 속해서 부귀와 영광을 누리며 갖은 망령된 행실을 하고 있다. 그러기에 세상의 복을 누리며 기뻐하는 멸망 길로 가는 데로 저울이 기울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은혜가 크면 클수록 악이 더해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으며 멸망 길로 급히 내려가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도 저울질하신다. 우리의 중심이 하늘에 속해서 하늘나라의 참된 복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참으로 깨닫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의 영광을 취하기 원하고 그 길로 달려가고 있는가를 저울에 달아보신다.

지금은 저울질해도 표면적으로 잘 나타나지 않지만 요한계시록 6장 5절에 셋째 인을 뿜 때 검은 말을 탄자가 가지고 등장하는 저울은 그 저울에 달아보아서 검은 말 탄자에 속해 있으면 멸망의 길로 완전히 끝나게 될 것을 계시하는 말씀이다. 검은 말 탄자의 저울은 하늘나라에 나를 위해 예비한 영광을 입혀주시는 데에 따른 영생의 기쁨보다 사람의 영광을 얻기 원하는 자들을 저울에 달아서 검은 말 탄 자에 예속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검은 말 탄자가 저울을 달 때에

하늘영광을 소망하며 거기에 합당한 열매 맺는 믿음으로 사는 자에 대해서는 검은 말 탄자가 결코 좌지우지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셋째 생물로 성도를 살리는 역사로서 이긴 자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이와 반대로 세상 영광을 바라봄으로써 지게 된 자는 검은 말 탄자에게 속해져서 멸망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검은 말 탄 자가 등장하게 되면 육신적인 기근이 실제로 3년 반 동안 찾아오게 되는데 육신적인 기근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시키고 돌이키게 하셔서 영광의 면류관을 입혀주시는 복된 역사임을 깨닫는 자는 검은 말 탄자를 능히 이기게 됩니다. 이러한 성도를 가리켜 포도주와 감람유로 표현한 것인데 이들은 검은 말 탄자로 인한 심한 기근 속에서도 절대 해를 받지 않게 됩니다. 5:28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베레스’나 25절의 ‘우바르시’는 같은 의미입니다. 베레스의 복수형이 우바르시으로써 ‘조각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해이리고 해이러서 저울질해 보니 기울어져 조각이 난다는 뜻입니다. 벨사살왕이 조각이 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왕이 조각나니 그 나라도 조각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바벨론 나라가 망해서 조각이 나고 흩어지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글로 쓰신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금신상의 꿈을 보여 주셨는데 금 머리, 곧 바벨론 시대가 완전히 끝나면 이보다 못한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의 나라, 곧 메대와 바사가 도래 될 것을 계시 하셨습니다. 이 꿈대로 벨사살왕 때에 바벨론이 완전히 패망하게 되는 데 이것이 ‘베레스’란 뜻입니다.

느부갓네살왕은 히브리서 6장 7절의 땅과 같아서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발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가 되었고, 벨사살왕은 히브리서 6장 8절의 땅과 같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어 버림받고 저주에 가까워 불사름이 되고 만 것입니다.

장한국 목사

주사교회 담임  
대한노회 노회장  
본지 성임이사



## 은총 기도원



원장 주은총 목사

매월 첫째주(월-목) 정기성회  
(지저스타임즈 부흥사회 주관)

매월 셋째주(월-목) 정기성회  
(세계주영광 부흥사회 주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 2동 486-27(2층)  
☎ : 010-6327-0191, 070-7518-0195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대하라!”

## 심령부흥 성회



대표회장 광영민 목사

- 예정(백성) 인천노회 소속
- 동불교회 담임
- 예수능력치유센터 원장
- 예수부흥사관학교 대표(인천)부흥사역수원장
- 지저스타임즈부흥사회의 사무국장
- 세계주영광부흥사회의 대표회장
- 지저스타임즈 인천지사장/본사 사무국장

대한예수교장로회 동불교회 · 예수능력치유센터  
“부흥회 및 부흥사 연수 요청”  
http://kmission.onmam.com / cafe.daum.net/kmission  
☎ 032)891-0651, 010-2080-0651

## 에녹부흥 사관학교



광영민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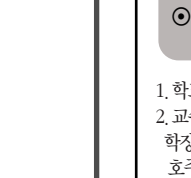
김명욱 목사



김해자 목사



윤상석 목사



김성연 목사

교: 수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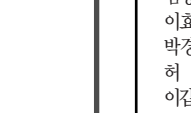
김선수 목사



김명욱 목사



이장광 목사



광영민 목사

http://kiea.onmam.com

교재제공 및 학비 없음

시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장소: 충만교회 · 충희신학연구원.

주소: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1동 8-7 2층.

문의: (대표)010-2080-0651, (사무국장)010-2008-5072

충희신학연구원 신학생 수시 모집  
(문의:학장 김해자 목사 010-5517-7223)

## 시도영성 신학원 학생모집

이 시대의 사명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시도영성 신학원은 수시로 접수 중...

2학기 개강: 9월 9일 오전 10시부터

- ◎ 학장: 홍요한 박사
- ◎ 교무과장: 양미상 목사, 교학처장: 홍성익 목사
- ◎ 선교회장: 신년규 장로
- ◎ 선교회 총무: 김동현 간사: 이현숙



학장 홍요한 박사

1. 학교비전 / 교과목 소개
2. 교수소개

학장: 홍요한 목사 (안양신학대학원 / 미국에클레시아대학원 목회학 박사 / 호주시드니 알파크로시스트대학, 미국 University of Puritan 한국학)

교수: 지왕철 목사 (미국시드니에클레시아대학원 목회학 박사/한글회 상임교수)

김장봉 목사(에클레시아신학대학원 / 미국CLARMONT대학원목회학 박사)

이효은 목사 (한양대학 / 총신대학원 석사. 박사)

박경준 교수 (안양대학원/미국하와이 인터내셔널대학원 기독교상담학박사)

허 식 목사 (안양신학대학원 석사 / 한국경목총회 장)

이갑표 목사 (한양신학대학원 / 대진대학원 석사)

이요한 목사 (안양신학대학원/전리수호국기독교회 대표 / 예수재단 대표)

이혜숙 목사 (한국농화교육자총회 중경총회장)

박용수 목사 (연세대학원 석사 / czech.org 이장원장 / 주성종교교회담임)

양미상 목사 (고려대학원 / 본 교무과장)

정기남 목사 (지저스타임즈 & JTNTV 방송 대표이사)

홍석익 목사 (미)순천한나사역연구원 학생처장)

사도들의 영성 특징

1. 사도들은 미래를 산 사람들이다. 2. 사도들은 마귀와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다.

3. 사도들은 실천하는 자정인이다. 4. 사도들은 자기를 이긴 사람들이다.

5.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완전에 가까운 사람들이다.

시도영성신학원을 개원하면서 평신도 신학도들이 초대교회 사도들의 영성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첫 사명을 살려 마지막 대를 대비하라는 데 있다.

주소: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615-3 1필지 에스티엑스 더블유타워 11층 1108호

· Email: church7@hanmail.net

· 학장: (010) 7585-1955 02)2625-0982

www.inamhyun.org

대한예수교장로회



남현교회



담임목사 이준복

비전 2020

1. 열정적 전도
2. 전인적 양육
3. 사랑의 공동체
4. 감격의 예배
5. 기쁨의 봉사
6. 즐거운 교제
7. 능력의 선교

전도로써만은 백성이 남치는 교회  
기도로써는 역사가 남치는 교회  
종교개혁의 열매로 남치는 교회

| 예배시간 안내     |                    |                    |                    |
|-------------|--------------------|--------------------|--------------------|
| 주일 낮 예배     | 1부 주일 오전 7시 30분    | 2부 주일 오전 9시 30분    | 3부 주일 오전 11시 30분   |
| 주말영양예배      | 1월 1부 주일 오전 2시 30분 | 2월 2부 주일 오전 2시 30분 | 3월 3부 주일 오전 2시 30분 |
| 주 일 오 후 예배  | 주일 오후 3시           | 주일 오후 4시           | 주일 오후 5시           |
| 수 오 예 배     | 수요일 오전 9시 30분      |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 수요일 오전 11시 30분     |
| 수 오 심 어 기도회 | 수요일 오전 9시 30분      |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 수요일 오전 11시 30분     |
| 새벽 기도회      | 1부 매일 오전 5시        | 2부 매일 오전 6시        | 3부 매일 오전 7시        |

| 주일학교(매일 오전 11시 20분) |           |           |           |
|---------------------|-----------|-----------|-----------|
| 영아(1세 이하)           | 1층 영아부실   | 유치부(4-7세) | 1층 유치부실   |
| 1초등부                | 2층 1초등부실  | 2초등부      | 2층 2초등부실  |
| 3초등부                | 2층 3초등부실  | 4초등부      | 2층 4초등부실  |
| 5초등부                | 2층 5초등부실  | 6초등부      | 2층 6초등부실  |
| 7초등부                | 2층 7초등부실  | 8초등부      | 2층 8초등부실  |
| 9초등부                | 2층 9초등부실  | 10초등부     | 2층 10초등부실 |
| 11초등부               | 2층 11초등부실 | 12초등부     | 2층 12초등부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346(개봉동 170-18)

전 화 / ☎ 02)2618-8877-8, 2060-9123

FAX 2060-9124 / 당회장실 ☎ 02)2684-3317





## 10월 주님과 함께하는 가정예배 소진우 목사(예복 교회 담임 / 본지 사장)



소진우 목사

- 예복교회 담임
- 지저스타임즈 · JTNTV 방송 사장
- 라이즈월드미션 총재
- 극동방송 칼럼리스트
- 백석TV 칼럼리스트
- CTS 칼럼리스트

### ◇ 감찰하시는 하나님

성경: 창세기 39장 7절-18절 찬송가 452장

사람은 어떤 상태에서든지 시험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것은 요셉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처의 유혹에 넘어갔을 경우 그 죄에 대해 쏟으실 진노가 어떠한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질 때 하나님을 바로 알고 기억한다면 우리는 범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과 우리의 모든 행동 일수족 일투족을 감찰하시는 것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정들이 소망합니다.

### ◇ 고난 중의 침묵

성경: 창세기 39장 19절-23절 찬송가 364장

본문을 보면 요셉의 보다발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 감옥에 갇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졌을 것입니다. 끝까지 항변하고 싶고 누군가 붙잡고 하소연하고 싶고 자기를 그렇게 만든 사람을 원망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변명도 원망도 없이 끝까지 고요히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행실을 보시고 아시고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 또한 요셉의 모습처럼 고요히 나의 모든 행실을 아시는 주님만을 기억하고 위로받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 고난과 역경은 축복입니다.

성경: 창세기 39장 1절-6절 찬송가 242장

본문을 보면 요셉은 형들에 의해 종으로 팔려가지만 노예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그의 신분도 그

의 지위는 가장 낮은 노예였지만 그 생활 중에서도 요셉은 행복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성도에게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시지만 그러한 고난과 역경에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그 중에서 하나님께 훈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삶을 형통케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 또한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축복으로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 남의 티끌만을 나무라기 보다는

성경: 창세기 38장 12절-30절 찬송가 96장

본문을 보면 다말이 유다가 슬해 취해 있을 때 관계를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것을 모른채 다말이 행음하여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진노하여 그를 가장 극악한 자에게 내리는 벌을 주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죄는 잊고 남의 죄에 대해서는 크게 진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결을 물려나 자신을 보면 자신 또한 같은 사람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 또한 내 앞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끌만을 나무라기 보다는 내 삶을 먼저 돌아보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 바로 앞에 선 요셉

성경: 창세기 41장 14절-24절 찬송가 321장

본문을 보면 바로 왕이 요셉에게 지문을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 노예 죄수에게 지문을 구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요셉으로서는 바랄 수도 없는 놀라운 일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의 간섭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 또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안 될 것 같은 일도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섭리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 비록 노할지라도

성경: 창세기 42장 6절-25절 찬송가 322장

본문을 보면 요셉이 자기의 형들을 만났을 때 일부러 모른 채 하고 엄한 모습을 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형들에 대한 보복 심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형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자기의 정체를 밝히면 그 신분 때문에 용서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공과 사를 가려서 처신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은 사적인 일로 하나님의 일을 가리는 가정들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 ◇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

성경: 창세기 42장 1절-5절 찬송가 459장

본문을 보면 야곱은 대가뭍으로 인해 계속되

는 기근 속에서 먹을 양식이 없어 죽기에 이르렀으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야곱은 "너희는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자세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신앙과 "나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세로서 끝까지 소망 중에 전진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은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한 믿음의 적극성을 잃지 않고 승리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 하나님 주신 가정

성경: 창세기 41장 46절-57절 찬송가 97장

소년 시절 미국 땅으로 팔려와 나이 30이 되도록 혼자였던 요셉은 고독하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게 된 것은 큰 기쁨이요 축복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때때로 되면 가정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연합하여 하나님을 이루는 것이 이상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 가정들은 하나님이 주신 가정에 감사하며 그 가정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꾸며가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때

성경: 창세기 41장 1절-13절 찬송가 457장

사람은 때로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며 어려운 현실에 대해 지겨워 하기도 합니다. 요셉 또한 감옥에서 기대했던 술맡은 관원장의 도움이 없이 2년을 그렇게 지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정하신 때와 세우신 뜻을 정밀하게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치밀하게 다스리십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은 반드시 그 다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 행복을 디자인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이 주신 훈련

성경: 창세기 41장 25절-45절 찬송가 382장

본문을 보면 요셉은 바로왕의 꿈을 풀이해 주고 애굽의 총리대신에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소년 시절부터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이별 및 팔림을 당하고 또한 객지생활은 부목을 당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만사를 주관하시고 뜻대로 섭리하시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훈련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과정을 무시하지 마지막에 쓰임받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 GIVE AND TAKE

성경: 창세기 40장 1절-23절 찬송가 183장

본문을 보면 감옥에 갇혀 있는 바로의 두 신하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술맡은 관원장은 감옥에서 소망없이 지내다가 요셉의 꿈 해석을 받고 그대로 되어 전직에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버렸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자기중심적인 인간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그는 마땅히 요셉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했건만 그러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 또한 내 이웃에게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또한 그 받은 은혜를 되돌려 줄 수 있는 사람이 넘치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 믿음의 고도를 높여라

성경: 에스겔 39장 17절-20절 찬송가 312

본문은 하나님이 없이 평생 하나님을 대적하며 수없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악인들의 비참한 최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악한 세력들의 최후를 보게 하시며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하신 말씀입니다. 즉 최후에 악인들은 처참한 그날이지만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에게는 승리의 잔치가 될 것을 보여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은 지금 당장 눈 앞의 현실을 보지 말고 믿음의 고도를 높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가정

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

성경: 에스겔 42장 1절-14절 찬송가 328장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방은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먹고 거룩한 의복으로 같이입고 또 거룩한 의복을 보관하는 거룩한 방입니다. 제사장들은 예배를 위해 구별되지 않은 사람들과 접촉하기 전에 구별된 장소에서 제물을 먹고, 다른 옷으로 같이입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를 위해서는 거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우리 가정들도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를 그저 준비없이 소홀히 여기지 말고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 충성된 일꾼

말씀: 빌립보서 2장 19절 - 22절 찬송가 502장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자신의 아들과도 같은 동역자였음에는 틀림없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장기간의 육중생활 속에서도 성도들을 향한 열정이 있었으며 자기를 대신해서 성도들을 돌아봐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요청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요청이 왔을 때 흔쾌히 감사하며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충성된 일꾼은 자기의 일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가 충성된 일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엡 3:14~19절)

생명의 근원은 뿌리에 있습니다. 아무리 왕성한 나무라 할지라도 뿌리가 없다면 얼마 가지 못하여 죽고 맙니다. 그러나 나무를 잘라 버려도 뿌리가 튼튼한 나무는 그 그루터기에서 싹이 돋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뿌리를 내리는 신앙이 되어야 생명의 근원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뿌리의 가치는 엄청납니다.

### 1. 뿌리를 내리면?

1)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한 나무는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도 뽕히지도 않은 것과 같이 우리의 신앙도 뿌리를 깊이 내린 신앙은 시험의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 2)뿌리를 내리면 은혜를 받습니다.

사뭇가에 심겨진 나무는 걱정이 없습니까. 그 어떤 가뭄에도 사뭇물을 흡수하여

왕성하게 자라나듯이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려진 신자라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3)뿌리를 내리면 열매를 맺습니다.

뿌리를 내리고 왕성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의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나 자신의 신앙은 어디까지입니까? 믿음으로 신앙의 뿌리를 만세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살롬

### 2.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할까요?

나무는 사뭇가에 뿌리를 내리듯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려야지 세상에 내려면 우리의 신앙은 생명을 잃게 됩니다. 1)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2)교회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3)가정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지면 그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뽑히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담임 엄신형 목사  
(직전총회장)

## 중흥교회

### 주일에배안내

오전 7시 1부, 11시 2부, 오후 2시, 5시

134-884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30-2  
전화 : 02)476-7131

담임 광완근 목사  
(신문방송 운영이사)

##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두란노교회

### 예배안내

주일오전 : 오전 11:00 수요일 : 오후 7:30  
주일오후 : 오후 2:00 새벽기도 : 오전 6:00

충남 공주시 봉황동 96번지  
전화 : 041-854-3676 H.P 018-320-1507

2013년 포어 :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요 1:14절)



담임 서명범 목사

## 대한예수교 장로회 공덕교회

담임 : 서명범 목사(본지 운영이사)  
시무장로 : 송두현, 조길수, 박성현  
안수집사 : 강정구  
권사 : 전순자, 김명애, 김은자, 진규자  
〈예배안내〉  
주일예배 오전 11시 오후 2시  
삼일밤 오후 8시 금요기도회 저녁 9시

주소 : (314-060) 충남 공주시 이길 6-1 (공주시 봉황동 295번지)  
교회 및 팩스 ☎041)853-9966 e-mail:lov153@naver.com  
홈피 코헬렛 http://lov153.cafe24.com

## 주성청각장애인교회



담임 우슬초 목사

### 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3시 오후 8시  
수요일 오후 7시 금요일 새벽 5시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트리자움(A) 319동 1803호 http://ezob.org  
☎ 02)414-1191 H.P 011)775-5154 010-4611-3221



## 서울방주농아교회

담임 임혜숙 목사  
청각장애인지방연합 대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316 2층  
문의:010)4611-3221

## 실만한물가교회



담임 김안식 목사

### 예배안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교회”

주일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전야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저녁 7:00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토요일 제외)  
이런이부예배 주일 오전 9:30  
중 · 고등부 주일 오전 9:30  
대학 · 청년부 (토) 저녁 7:00  
심야 기도회 (금) 저녁 9:00  
프리스트 성경공부 (화) 오전 9:00 (화) 오후 7:00

(360-170)충북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446-9번지  
TEL 043) 217-0191, 070-8666-0691

대한예수교  
장로회

## 과천영락교회

담임 허식 목사  
(한경총 총회장)

### 예배안내

오전 11시 1부, 오후 2시 2부

426-182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동535-5 센스빌딩 4층  
☎ 031)416-8290

담임 오상벌 목사  
(본지상임이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 승리교회

표어 :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4:13)

주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555-1  
전화 : 041-564-7004, 041-551-3553



# 「反국가 종북세력 大척결 9차 국민대회」개최

反대한민국의 발톱을 숨긴 채 진보의 탈을 쓰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 안보 - 법치를 농단하는 “反국가 종북의 난” 끝장내자 !!!

대한민국재향경우회(회장 구재태)가 2013년 9월 28일(토) 오후 6시 30분 서울 광화문 동 화면세점 앞에서 전국의 경우회원 등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反국가 종북세력」大척결 9차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국민대회에서는 反대한민국의 발톱을 숨긴 채 진보의 탈을 쓰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 안보 - 법치를 농단하는 “反국가 종북의 난” 끝장내자 !!!를 강력 촉구했다.

구재태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중앙회장은 대회를 통해 ▶국민이 가장 혐오하는 개혁의 대상인 정치권이 「국정원」을 개혁 혹은 해체하려는 것을 비판하고, ▶정부가 더 이상 비정상에 관용을 베풀지 말



것 ▶검찰독립은 주권자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정치세력화하고 국법 사권 분질 등 제도적 견제장치를 질서까지 농단할 정도라면 검·경 수 반드시 만들어야 함을 역설했다.

## 김풍일, 이단성 여전...신천지, 이미지 변신 중

예장성서총회 총회장 김노아 목사 7월30일자 한기총 가입

여수종교문제연구소 신외식 소장의 이단문제 ‘주간정보’ (13년 9월 넷째주)

1. 예상통합 98회 총회 주요이단 결의 현황

1) 인터콥 “예의주시·참여자제” 규정 유지·최바울 씨 해명·반성의 진정성은 지켜봐라” 2) 전능신교(동방번개) “이단사이비” 규정, 3) 아시야교회 박철수 씨에 대한 2010년 제95회 총회의 규정(“비성경적·참여금지”)을 유지하기로 결의, 4) 환규학·〈로앤처치〉“상습적 이단운동자·연론” 규정 “사과 후에도 노골적 친이단적 행위 서슴지 않아” 5) 〈기독교신문〉“상습적 이단운동 연론” 규정 이단과 단절할 의지 없다고 봐야할 것 6) 가계저주 이윤호 “사이비성 농후” 규정 해제 “본인의 해명과 반성의 진정성이 인정 된다. 7) 이인강 씨 “사이비성”→“예의주시” 규정 〈답변서〉 등 이점환 목사 측 자료 다수 참고

2. 한국교회는 김노아(김풍일)가 한기총에 가입한 것에 대해 충격으

로 받아드리고 있다. 신천지유사 김풍일이 어떻게 한기총에 가입을 할 수 있어?... ‘이단성 여전’ 확인 7월 28일 설교 “기독교회 전부가 ‘다른복음’ 전하는 자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가 드디어 ‘신천지 수준’으로 추락한 것일까?

예장 통합측 제94회 총회(2009년)에서 “신천지와 유사한 이단사상”으로 규정된 김풍일 씨가 지난 7월 30일 한기총에 가입했다. 교단명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성서총회(총회장 김노아 목사). 과거 사용하던 ‘예장 성경총회’라는 이름은 물론, 새빛등대중앙교회라는 교회명 역시 새광중앙교회라는 이름으로 갈아치운 상태다.

김풍일 씨는 과거 자신이 ‘보혜사’라며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다”, “동방은 한국이다”, “예수 믿고 천당 간 사람 아무도 없다”, “2000



년 동안 인봉됐던 게시물을 내가 다. 소위 ‘첫 장막’ (교주 유재열) 풍다”는 등의 주장을 하던 인물이 출신의 이력답게 성경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해 자신을 신격화 했던 것이다.

지난 2009년 7월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한국교회 앞에 진심으로 사파드린다〉며 “①보혜사로 가르쳐 온 것을 회개한다 ②예수님을 ‘사람의 씨’라며 동정녀탄생을 왜곡했으며, 기성교회 목회자들을 비난한 것을 회개한다 ③성경을 비유로 풀고 보혜사가 있는 한국을 중심으로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한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한다 ④지금까지 가르쳐 온 것을 포기하며 회개한다”는 성명서를 대대적으로 발표해 세간을 여러동절하게 만들기도 했었다.

이후 4년여의 세월이 지난 지금, 김풍일 씨가 한기총에 가입하면서 현재 그의 사상이 다시 한 번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한기총이 과연 김풍일 씨의 이단사상을 충분히 검증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 때문이다.

3. 국민일보 <이단, 사이비 신천지를 파헤치다> 보급

국민일보는 최근 신천지 대처 매뉴얼인 ‘이단 사이비, 신천지를 파헤치다’를 제작, 무료 배포를 하는 중이다. 127쪽 분량인 이 책에는 신천지의 기상천외한 포교법과 교주 이만희의 정체, 신천지의 생

성과 교리, 8단계 맞춤형 전략, 14개 그림 등 필수 교육 내용, 예방책 등이 들어있다. 특히 부록엔 성도 1명을 미혹하기 위해 작성하는 신천지 플랜지와 섬의자 관리카드, 전도요청서, 신앙관리카드, 신천지 예방 팸플릿, 신천지 대처 인터넷 사이트,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지역별 연락처 등의 자료를 수록했다.

문의를 국민일보기독교연구소(02-781-9182).

4. 주요교단 총회 인터콥 (인터콥 대표 최바울)에 대한 규정 예상통합 “예의주시·참여자제” 규정 유지·최바울 씨 해명·반성의 진정성은 지켜봐라” 예상합동, 인터콥 일체 교류 단절할 것으로 규정, 예상합신, 참여·교류금지” 규정 98회 총회... “심각한 이단적 요소 12가지” 보고서 채택, 예상합신측(총회장 이주형 목사)이 2013년 9월 10~12일 인천 강성장로교회에서 열린 제98회 총회에 인터콥선교회 최바울 대표에 대해 “심각한 이단적 요소들이 있다”며 “참여금지 및 교류금지”로 규정했다.

합신측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대위, 위원장 안상진 목사)는 보고서에서 “(최바울 씨가) 이단단

체와의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도 관계에 대해서는 부정하며, 자신에 대한 이단관련 지적에 대해 ‘음해’와 ‘모함’으로 몰고 간다”며 “나를 수정하여 잘라냈다는 그의 주장엔 진정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합신측은 또 최바울 씨가 △성경의 역사를 신들의 전쟁(하나님과 마귀)으로 보는 이원론적인 위험한 사상 △애곡된 종말론과 적그리스도론 주장 △비성경적인 변방신학 △자의적인 성경해석과 성경 짜깁기 등 12가지의 이단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합신측은 “최바울(인터콥 대표)은 본 교단의 신학사상에 비추어 볼 때 ‘심각한 이단적 요소들이 있어 참여금지 및 교류금지’를 규정해 주시기를 청원하오니 하락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이대위의 보고를 그대로 받았다.

5. 신천지측에서 전국적으로 벽화그리기 운동전제로 이미지 변신을 피하고 있다. 군산 여수 영등포 천안 서산 울산 진해 등 전국 주요도시에 벽화그리기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특히 여수지역에는 고소동 화양면 장동지역에 벽화를 그렸다.

자료출처 : 기독교포털뉴스

## 장기요양기관(행복의집)



원장 : 박순목 목사  
(본지 상임이사)

가족처럼

어르신(환자)을 모십니다.

(등급판정-1급-3급자 환영)

☎(033)541-0687 / 010-7405-9191  
www.1004tv.net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능구리



담임목사 최낙현 원장

## 사랑, 섬김, 행복이 가득한 강릉 정동진 산성그리스도의교회

SANSEONG CHURCH CHRIST

부설/장기 요양원 정동진 희망원

예/배/세/간/안/내

주일 오전 10시30분  
주일 오후 1시 1시30분 2시

- 국제 153부흥협의회 대표회장
- 세계교회부흥협의회 운영회장
- 천안총회신학신대원신학교수
- 서울 칼로신학연구원 교수
- 지저스타임즈 상임이사

210-822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255-12  
TEL:(033)655-0691, 0692 / HP:010-6409-0091  
E-mail:cnh1091@hanmail.net

## 한국기독교장로회 홍성제일교회

| 구분         | 부    | 시  | 간     |
|------------|------|----|-------|
| 주일 및 예배-1부 | 주일   | 오전 | 9:00  |
| 주일 및 예배-2부 | 주일   | 오전 | 11:00 |
| 주일 및 예배    | 주일   | 오후 | 7:30  |
| 주요 경 예배    | 주요 경 | 오후 | 7:30  |
| 교우영양회(유년회) | 교우   | 오후 | 8:00  |
| 유년부 예배     | 유년   | 오전 | 11:00 |
| 아래에 교회학교   | 유년   | 오전 | 9:00  |
| 중·고등부      | 유년   | 오후 | 4:00  |
| 고 대학부      | 유년   | 오후 | 6:30  |
| 성년회        | 유년   | 오후 | 6:30  |



담임목사 오종실

주소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952 번지  
전화 : 041-634-0441(사무실)  
041-633-6146(목양실)

## 자연의 美를 추구하는 샤론조경



대표 장봉섭 장로

사론지구촌예술교회 장로  
영.육건강치유선교회총재  
기.연.목.부.협동회장  
강신숙문화예술대학원이사장

양평이포백암농장

hp. 010-6206-4846  
tel. 031-732-4846

## 대한예수교장로회 안천교회 ANCHEON PRESBYTERIAN CHURCH

표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된 교회!



담임 서정환 목사

1.설천 목표

- 1) 제사장 나라 된의 설천 목표
- 1) 교회를 통해서 다리 놓는 자선 교회(시126:5-6절)
- 2) 선교를 통해서 다리 놓는 자선 교회(행13:1-3절)
- 3) 성전을 통해서 다리 놓는 자선교회(빌4:10-20절)

2.거룩한 백성 된의 설천 목표

- 1)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성도(산5:12-15절)
- 2) 만물창조에 감사하는 성도(약3:1-12절)
- 3) 악한자를 배려할 줄 아는 성도(롬14:1-12절)

(445-380) 경기도 하성시 안평동 138-153  
Tel.(031) 234-0511, Fax.(031) 234-7751

## 조에 교정선교회



담임 유윤주 목사  
법무부 교정위원  
영적복음가수

조에/생명살리는 교정선교  
청송교도소  
청주교도소  
춘천교도소  
직훈(직업훈련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4동 884-5 202호  
☎ 070-8632-6993 / 010-3035-5704

##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원예담교회

예배시간 안내

주일오전 예배  
주일오후 예배  
삼일기도회  
새벽기도회  
부서별기도회  
새가족  
청년부  
청소년부  
초등부(1~6학년)  
유치부(6~7세)  
영아부(3~5세)



담임 이재성 목사

관악구 신원로 3길 59-9(8/2) (구.신림1동 1612-7)  
☎ 02)859-3671 FAX 02)859-3673

## 영.육건강치유선교회 기독교연예인부흥사업의회



정성철 팀장  
(사론지구촌예술교회장사)  
영.육건강치유선교회총재  
기.연.목.부.협동회장  
강신숙문화예술대학원이사장



강신숙 목사  
영.육건강치유선교회총재  
기.연.목.부.협동회장  
010-8048-4846

선교성금 : 213601-04-118836 국민은행  
예금주 : 강신숙(기.연.목.부.협)







## 예장개혁신동총회, 총회장에 박영길 목사 추대

개혁신동총회는 총회사무실은 예전 개혁신B 사무실 한시적 사용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박위근 목사) 회원 교단인 예장 개혁신(A.B) 두 교단이 합동총회를 갖고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화를 위한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다.

예장 개혁신총회는 지난 24일 오전 11시 소망교회(장근태 목사)에서 '다시 흥하는 총회'(롬22:23)를 주제로 제98회 합동총회를 개최하고 총회장에 박영길 목사를 추대하는 등 새로운 임원을 선출했다.

회무처리에 앞서 열린 합동예배는 부총회장 안성삼 목사의 사회로 장현 목사(서기)의 기도, 서용진 목사(서기)의 성경봉독, 임장섭 목사(총회장)의 설교에 이어 정두일 목사(증경총회장)와 이강욱 목사(장로부총회장)의 특별기도와 김규섭 목사(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의 격려사, 박위근 목사(한국연대 대표회장)와 권태진 목사(한장총 대표회장), 김동엽 목사(예장 통합 총회장), 나원 목사(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이사장), 장영춘 목사(미주총회 증경총회장)의 축사와 장근태 목



사(증경총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이어 열린 회무처리는 합동위원장 황인찬 목사의 사회로 총회가 개최돼 신광수 목사(합동위원)의 경과보고 후 장세일 목사와 황인찬 목사가 양 교단의 합동을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고 신용현 목사가 합동선언문을 낭독했다. 끝이어 특별위원회 위원을 발표하고 선정된 임원을 발표한 후 합동전권위원장이 신일 총회장 박영길 목사에게 사회권을 이양해 신일 총회장과 임원

취임식이 거행됐다.

다음은 제98회 총회 임원

▲총회장 박영길 목사 ▲제1부총회장 안성삼 목사 ▲제2부총회장 김경훈 목사 ▲장로부총회장 이강욱 목사 ▲서기 윤서구 목사 ▲부서기 김기남 목사

▲회록서기 조세영 목사 ▲부회록서기 신은성 목사 ▲회계 김안식

장로 ▲부회계 이민희 장로

예장 개혁신총회는 이날 발표한

합동선언문에서 "한국의 우수한 7

개 교단으로부터 이단 정죄를 받은 일명 다락방파의 아담으로 개혁신의 정통신앙의 교단성을 짓밟는 폭거에 맞서 개혁신의 바른 신학과 신앙을 사수하기 위해 고군분투한 개혁신(B)과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를 중심으로 건전하게 발전해 온 개혁신(A)가 이제 하나가 되어 진정한 개혁신의 신학과 신앙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명실 공히 진정한 개혁신회복을 위해 신학과 신앙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태생적으로 한 형제인 우리가 하나가 되는 길을 열었다"고 선언했다.

예장 개혁신총회는 총회 목사후보생 양성 신학교로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를 제1인준 신학교로 인준했으며, 총회사무실은 예전 개혁신B 서울 송전동 사무실을 한시적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또한 총무는 서운남 목사를 대내 총무로 최희용 목사를 대외총무로 각각 인준하고 직원들은 현 직원을 그대로 수용하되 임기직은 잔여임기까지로 했다.

## 예장정통총회 49차 정기총회

현 총회장 양정섭 목사 연임

대한예수

교장교회(정통)총회 제49차 정기총회가 구로동 평안교회에 2013년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열렸다. 이날 예배는 상임총무 임정태 목사의 인도로 시작되어 부총회장 이영춘 목사(감람산기도원 원장)의 기도와 사회자 임정태 목사가 성경 엠 5:1-14절을 봉독한 후 총회장 양정섭 목사는 "소속이 분명한 사립"이



양정섭 목사

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예장정통총회는 이날 W.C.C 부산총회 개최를 즉시 철회하라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반대운동에 뜻을 같이했다. 아울러 성경대로 살며 자유주의에 현혹 되지 말며 정통으로 소속이 분명한 목회자가 되어 말씀대로 살아가자며 권면하고, 양정섭 총회장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에 들어가 부총회장 김인호 목사의 기도, 서기 강철원 목사의 회원점명 결과 210명 중 121명의 총대가 참석하여 의장 양정섭 목사는 제49차 정기총회 개최를 선언하여 회무처리에 들었다. 이날 임원선

출에서 현 총회장 양정섭 목사가 만장일치 박수를 받으며 재임되었다. 부총회장에 양성국 목사, 이규형 목사, 김홍룡 목사, 이영춘 목사, 김인호 목사를, 상임총무 임정태 목사, 총무 이대용 목사, 부총무 이광복 목사, 서기 강철원 목사, 부서기 양성은 목사, 회계 김영의 목사, 부회계 임병선 목사, 회의록서기 현준호 목사, 부회록서기 조익수 목사, 감사 이순례 목사, 한성욱 목사 등을 선출했다. 이어 신 안전 토의는 사업안과 예산안, 총회운영 문제 등을 다루고 신학교 운영문제는 이사회로 넘기고 이사장 양정섭 목사에게 위임했다. 그 모든 사항은 임원회에 위임하고, 의장 양정섭 목사는 고린도전서 4:1-2를 봉독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쳤다.

## 예장개혁신동총회장 김송수 목사 선출

목사부총회장 서금석, 장로부총회장 이희중, 총무 김경만 목사

예장개혁신동 제98회 정기총회를 지난 9월 9~12일까지 서울 강서구 등촌동 예원교회(정은주 목사 시무)에서 갖고 김송수 목사를 총회장에 선출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총회(행 9:31)"라는 주제로 열린 개회예배는 총회장 정학재 목사의 진행으로 1부 예배가 시작되어 조경대 이사장(개신대)의 축도로 마쳤다. 이어 조경삼 목사(증경총회장)의 집례로 성찬예식을 거행하고 정은주 목사의 축도가 있었다. 이어진 정기총회는 87개 노회, 1302명의 총대가 참석하여 총회장 김송수 목사(경기노회), 부총회장 서금석 목사(남서울노회), 장로부총회장 이희중 장로(대구노회), 서기 이희중 목사, 부서기 김한곤 목사, 회의록서기 하금석 목사, 부회록서기 윤양은 목사, 회계 최삼봉 장로, 부회계 김경수 장로, 총무 김경만 목사 등이 당선됐다.

이날 정학재 목사는 "총회장이 된 후 이단이 아닌데도 이단으로 몰려



20년 동안 고통을 당한 류광수 목사에게 너무도 가슴이 아팠다"고 말하고, "그래서 한기총을 통한 이단해제가 이뤄지도록 전심으로 노력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력을 기쁘게 받으시고 한기총을 통한 이단해제가 이뤄지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이것은 한국교회에 새로운 이정표를 만든 것"이었다며 "이제 우리는 하나"요 "앞으로 발전적인 총회로 나아가기 위해 힘을 모으자"고 했다. 이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는 "내년에는 류광수 목사가 시무하는 임마누엘교

회에서 총회를 담당하게 열기를 바란다"면서 "한기총은 개혁신회가 많은 공격을 받고 있지만, 한기총은 연합기관으로서 철저히 류광수 목사에게 대해 조사를 했으며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 없다" "오히려 합동은 류광수 목사에게 소명기회는 물론 제대로 조사도 없이 이단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또한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는 "개혁신교단이 자신만만한 교단이 되고 한국교회에 하나 되어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 [합동중앙] 조갑문 총회장 연임 "교단사태 마무리 해 달라"

대학원대학교 설립 적극 추진키로

(사)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중앙 제47회 정기총회가 10일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위치한 총회회관에서 개최하고 총회장에 조갑문 목사가 연임됐다.

이날 선임된 임원은 △부총회장 손문석, 전복순, 이선옥, 박은실, 이여백 목사 △서기 권오장 목사 △부서기 송홍열 황명숙 목사 △회계 이덕희 목사 △부회계 윤순자 조은아 목사 △회록서기 김은익 목사 △부회록서기 함두만 한신영 목사 △총무 강정식 목사 △부총무 박남중 이정남 김양순 기노성 목사 △감사 안성봉 이덕수 김정자 이종득 등이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총회'(대하 20:14~19)라는 주제로 열린 정기총회는 전체 총대 222명 중 162명이 참석해 개회, 회원호명과 개

회선언, 절차보고, 각부보고, 임원개선, 안건토의 등의 순서로 사무처리가 진행됐다. 특히 임원 선거에서는 1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교단 사태를 최종 마무리해 줄 것을 염원하는 총대원의 지지에 따라, 현 총회장 조갑문 목사가 재선임됐다.

조갑문 목사는 "이 총회는 오직 하나님에 주인인 총회"라면서 "앞으로 재정이나 행정에서 투명한 총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총회장은 바뀌어도 총회는 바뀌지 않는, 든든한 합동중앙이 되게 하겠다"면서 "한 회기 동안 교단 속에서 지지해 주고 함께 준 교단 산하 모든 동역자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1부 예배는 권오장 목사의 사회로 손문석 목사가 기도했고, 이기록 목사가 특송했으며, 조갑문 목사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총회'(대하 20:14~19)란 제하로 설교했다.

조옥련 목사의 격려사에 이어 한기총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는 축사

에서 "합동중앙은 마지막 때 쓰임받은 교단"이라면서 "변함없이 계속적으로 한기총을 지지해 준 교단에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2부 성찬예식에 이어 3부 회무처리에서는 한 회기 동안 총회를 위해 헌신할 총회장과 임원들이 선임됐다. 총회 상정 안건으로는 제46회 총회에서 결의·구성된 '제규정 정비위원회'에서 심의 및 제출한 사단법인 정관 개정 변경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번 변경안은 총회헌법과 상충했던 부분을 대부분 수정하고, 교단 헌법에 해당 관청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흡수하여 조화를 이뤘다는 평을 받고 있다.

또 대학원대학교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 명실공히 든든히 서가는 총회가 되는 발판을 마련키로 했다. 위원장에 그 동안 비공식적으로 교단의 대학원대학교 설립을 추진해 온 은평노회(노회장 장영엽 목사) 이덕희 목사가 선임됐으며, 위원은 교단 차원의 추진을 위해 전국 노회장 및 인준신학교 학장으로 구성키로 했다.

전북노회에서 현의학 '교단 로고 변경안'은 1년 동안 연구하여 자기총회에서 최종 확정키로 했으며, 총회 직영신학원 운영을 지속하고, 제3회 한마음 체육대회와 목회자연강 교육 세미나를 개최키로 했다.

한편 합동중앙총회는 교단 분열사태와 관련하여 업무방해금지 본안소송을 2013년 8월 2일자로 제소했으며,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중앙) 총회나 교단 이름으로 총회나 각종 회의 소집금지"와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중앙) 명의와 엠블럼 사용금지"를 주문했다.

## 예장합동진리총회 현 총회장 박중선 목사 연임

합동진리총회 제98회 정기총회 열고 화합과 우의 다져



박중선 목사

예장합동진리총회는 지난 9월(월) 10일(화) 양일간 부천시 소사구 송내대로 소재 한마음교회(담임목사 박중선)에서 "한 마음 한 뜻을 이루는 총회"라는 주제로 제98회 총회를 개최하고, 현 총회장 박중선 목사를 재추선했다.

이날 정종진 목사(직전총회장)는 개회예배에서 담전 4:12~13절을 인용 "사역자의 참된 권위"(담전 4:12~13)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정 목사는 "목회자가 밤낮으로 하나님께 무릎꿇고 기도할 때 영적

권위가 생긴다"면서 영적 권위가 있으면,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바른 인격을 갖춰야 한다.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한다. 기도하고 자복하는 가운데 영적 권위는 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 권위를 세우고 성령충만을 받으라고 했다. 이어 한기창 목사(증경총회장)의 집례로 성찬식이 거행되고, 정기총회 회무처리에서 임원선거 및 각부 보고와 사무처리가 이뤄졌다.

# 지저스타임즈 언론부흥사협의회

한국언론부흥사협의회는 본 신문방송 단체이며 취지는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원 및 개 교회, 농어촌 오지에 이르기까지 신청하시는 교회를 찾아가 지역 복음화를 위해 집회를 인도해 드릴 것입니다. 본 단체는 총재 이효은 목사를 중심으로 건전교단의 목회자들입니다. 벌써 여러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언론부흥사협의회에 뜻을 가지신 분은 언제든지환영하며 부흥사로 같이 뛰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의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합니다.



총재 이효은 목사 (화정총연합회)



대표회장 정기환 목사 (신문방송 대표이사)



부총재 정기환 목사 (전원중앙교회)



부총재 장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부총재 정대성 목사 (강남복원교회)



부총재 권중훈 목사 (행복의집교회)



연수원장 소진우 목사 (예복교회)



사무국장 박영민 목사 (동불교회)



강사단장 박수영 목사 (행복성교회)



상임회장 홍창호 목사 (한경총 사무총장)



상임회장 박동호 목사 (백성교회)



상임회장 권세호 목사 (주천성교회)



상임회장 김동기 목사 (백성대평생교육원)



상임회장 최낙현 목사 (상강리기도교회)



자문 박양우 목사 (중부권지사장)



자문 이범성 목사 (한기법대표회장)



자문 허식 목사 (한경총 직전 총회장)



자문 최순길 목사 (논설위원)



자문 서영웅 목사 (유리탄대학총장)



자문 박한규 목사 (수도원 은목교회)



실무회장 여바울로 목사



실무회장 주은총 목사 (은총기도원원장)



실무회장 김창기 목사



실무회장 김영중 목사 (경남시무총장)



공동회장 임요한 목사 (문화부 부장)



공동회장 정성준 목사 (백성교회)



공동회장 이기학 목사 (포항지사장)



공동회장 김명옥 목사 (부흥사관학교 교장)



공동회장 전진성 목사



공동회장 강신숙 목사 (강신숙예술신학원)



공동회장 우술초 목사 (주성영각경매인교회)



공동회장 임해숙 목사 (서울성주교회)



공동회장 김부경 목사



공동회장(총무) 배정희 목사



회계 유윤주 목사 (조계교정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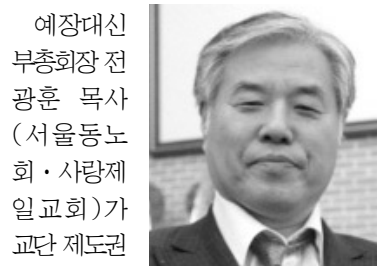
지저스타임즈 홈페이지 <http://www.jtntv.kr>  
경기 부천시 오정구 지양로 176번길 33(대운빌라 202호)  
대표전화) 070-8230-0034, 032-672-3031(팩스검음)

대표이사:010-5468-6574, 사무국장:010-2080-0651  
e-mail: jtntv@hanmail.net 웹하드: I.D-cpjkr, P.W-km1122



## 부총회장 전광훈, 교단교회정치에 총체적 변화예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독교당에 대한 관심 커, 기도로 결정하겠다!



전광훈 목사  
부총회장

예장대신 부총회장 전광훈 목사(서울동교회·사랑제일교회)가 교단 제도권 정치에 참여 이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광훈 부총회장은 소견발표에서 지금 지구촌에 위기가 왔다. 한국교회는 현재 1년에 20만 명씩 줄어가고 있다. 2000년이 되면 개신교 인구는 100만으로 줄어들고, 2050년이 되면 대한민국에서 개신교는 소멸된다는 충격적인 전망도 내놓았다.

그는 해마다 9~11월에는 총회·노회·임원회 등 국내 개신교 지도자 모임이 3000회 이상 열리는데, 이렇게 3천 번의 총회를 해도 대한민국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 같다'는 처절한 마음이 들었다. 그렇다고 합동이나 통합과 같은 큰 교단은 다른가 하면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삼성의 이견회는 기업이 어려워면 미누라 빼고 다 바꾸라'고 하고, 각 정부들도 엄청난 변화를 계속해서 시도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기독교 교단들은 지금과 같은 위기가 왔는데도 변화를 위한 처방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며'본인이 차기 대총회장 총회장이 되면 한국교회 전체를 살리기 위해 총체적인 변화를 시도할 것'이라며 포부를 예시했다.

부총회장 전광훈 목사는 기독교당과 관련, '본인도 과거엔 여러분들처럼 목회밖에 몰랐다. 그런데 지금은 돌아가신 김준곤 목사께서 본인과 성경동 목사를 불러서, '나라는 어렵고 교회는 망해가니 성경동 목사의 대중적 지지와 전광훈 목사의 청교도 조직으로 기독교당을 창당해서 이 나라를 구하라'는 말에 기독교당을 시작했다'며 '한국교회가 다 합쳐도 국회의원을 하나를 못 이긴다.

대표적인 예로 불교는 은행 이자를 약 2% 내는데, 교회는 5~6%내고 있다. 동성애법, 수쿠크법, 차별금지법 등 사회악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요한 웨슬레가 신행한 운동만 한 것이 아니라 윌리엄 윌버포스를 양성해 국회에 넣기도 했다'며 강조했다.

또한 "(2014년 지방선거 때) 기독교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지금은 대답 못하겠다. 그 때 가서 기도해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해 전 부총회장의 기독교당에 대한 포부를 밝히고 있어 교단정치와 교회에 대해 총체적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 김일성 묘 참배 무죄, 국가보안법 무색

국가보안법 위반 자에게 동방예의 잣대로 대한민국을 적화 시키고 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동방예의지국인 대한민국에서 평소 이념적 편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의 단순 참배 행위는 망인의 명복을 비는 예식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무단 방북해 김일성 시신을 참배한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라고 판단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2부(부장 박관근)는 찬양·고무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5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고 29일 밝혔다.

판결 이유는 대한민국은 예의국가(?)인데, 김일성 시신을 단순 참배한 것만으로 유죄판결을 할 수는 없다고 한 것이다. 과연 김일성 무덤 참배와 동방예의지국이 관계있을까?

조모(54세)씨는 1992년부터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씨(2007년 사망)를 후원했다. 조씨는 1993년 북송된 이씨가 자신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듣고 1995년 독일과 일본, 중국을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방북했다.

조씨는 미전향 장기수를 만나기 위해 지난 1995년 방북했다. 조씨는 북한이 잔 일정에 맞춰 북한 곳곳을 방문하고 금수산기념궁전에



안치된 김일성 시신을 참배했다. 북한은 이를 환영했고 남한 법조계는 이를 예의를 갖춘 사람으로 형량을 낮췄다.

북한 통일선전부의 도움을 받아 밀입북한 뒤, 김일성 동상과 김일성 시신에 헌화하고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한 행위 등을 예의로 판단했다는 것이 주요 이유였다.

조씨는 북한에 한 달 동안 머무르면서 각종 관제 행사에 참석한 뒤 독일로 돌아왔다. 이후 독일로 망명해 자녀다가 가족을 만나기 위해 작년 12월 귀국해 체포되고 기소됐다.

조씨는 항소심에서 "북한 당국이 짜놓은 일정에 따라 여러 장소를 방문하고 각종 행사에 참석했으나 북한 체제나 김일성 주체사상 등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조씨는 특히 금수산기념궁전 참배가 무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국가보안법을 제 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 원리에 비춰 동방예의지국인 대한민국에서 평소 이념적 편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의 단순한 참배 행위를 망인의 명복을 비는 의례적인 표현(예식)으로 해석이 회할 여지가 있다"며 조씨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였다.

이쯤되면 무죄를 강력히 주장하는 이석기도 풀려 나올 것이 뻔하고, 일본 정치인들이 야스쿠니를 참배하는 비난도 해서는 안된다는 사례가 된다.

재판부는 "이미 고인이 된 북한 지도자의 시신이 안치된 시설에서 소극적으로 참배한 행위만으로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했다거나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속단하기 주저된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국위보상 사업을 잡아 넣으면 재판부는 동방예의지국임을 적용해 형량을 낮추거나 풀어주려 한다. 이는 월남전 주일 한 국군이 베트남을 잡아 정부군에 넘기면 정부군은 같은 동족이라고 풀어줘 우리군에게 많은 피해

주고 망했다.

한 네티즌은 지난 국회에서 이석기 체포동의안에 반대와 기권한 30명을 국회에 있는 종북세력으로 보고 있다. 이석기 무죄를 주장하는 통진당과 측근 추종자들에게도 동방예의 잣대를 대야하는 입장인 현 우리나라는 각 분야별로 분포돼 있는 종북세력(바닥빨갱이)이 줄잡아 2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안보불감증에 걸려 위기감이 무뎌져 있다.

이해 안 되는 판결을 내린 오늘의 법조계에도 종북세력이 침투돼 있다는 입증으로 보인다. 사회적 일면을 보더라도 채동욱 사적 스캔들에 대해 일부 사회단체는 정부부처를 상대로 소송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국가안보와 밀접하게 관련된 이석기가 감옥에 있으면서 국민의 혈세로 월급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무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무죄일 것으로 보는 단일한 잣대의 끝을 외면하는 오늘의 대한민국은 적화가 머지않은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이 든다.

범법자에게 그것도 경제사범이 아닌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자에게 동방예의 잣대로 감형시키는 대한민국 과연 적화될까 겁난다.

최명삼 기자 c122103@hanmail.net

### 칼럼

## 대통령의 침묵

사울왕은 이스라엘 열왕 중에 가장 겸손한 왕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내어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시고 말씀하셨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이 있으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자와 소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삼상15:3)

사울왕은 즉시 이십일만 대군을 거느리고 아말렉성 골짜기에서 아말렉을 쳐 모든 백성을 죽였으나 양과 소의 좋은 것은 남기었다는 말씀이다. 사람은 겸손 속에 위선과 욕심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일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진멸하였다면 사울에게 무한한 형통함을 주셨을 것이다.

사신수상을 섬기는 이족은 개인이나 국가나 완전 패망함을 받는 것이다. 사람을 신처럼 위하는 공산세력은 언제인가는 아말렉처럼 진멸의 날이 올 것이다.

지난 8월 국내는 이석기 파동으로 모든 메스콤은 시간을 두며 방송보도 했다. 국회의원이 라는 명분으로 국가기밀을 수집하여 북으로 보내며 국가 전복을 위해 RO라는 공산혁명 조직을 만들어 세를 확장 시켰으며 유사시 주요 목표물을 폭파 지시한 내용들은 마치 6·25전쟁을 되새김질 하는 장면 같았다.

공산당은 그때나 지금이나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다. 내란을

모 국가전복을 위해 활동한 간첩 이석기를 구속직전까지 지지하며 시위한 좌파 조직들을 보고 있는 국민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대한민국법이 저렇게도 약한 것인가. 이석기의 공산혁명조직에 대해 재판까지 갈 사항이 아니다. 즉각 현장 사살 시켜도 부족한 것이다. 법은 강력해야 한다. 그 추종세력 전체를 철저히 색출 하여 단호한 조치를 해야 한다.

언제인가 북한 보도 내용에 김정은 측근여 몇 명이 퇴폐성 내용을 보았다 하여 즉각 현장 사살했다는 것이다. 만일 북한에서 우리가 민주주의 공작을 시도했다면 관계자가 수천 명이라 할지라도 즉시 현장 사살 시켰을 것이다.

이석기 사건에 대한 모든 메스콤과 방송 보도는 오히려 그들의 광란에 부채질 하여 우리 청소년들의 사상진로에 혼란을 주었는지 걱정이 된다.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공산주의 사상을 방치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려워지만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왔다.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이기에 야당이 있는 것이다. 공산주의는 야당이 있을 수 없다. 야당은 여당의 부족한 점을 채워 주고 더 좋은 정책이 되도록 협의 하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양당 체제인 것이다.

야당만 되면 모든 것을 반대하고, 투쟁하고, 장외로 나가고, 촛불 집회를 하면서 국민을 선동시키려 하는 것은 야당이 무

엇인지도 모르는 자들이며 정치가 무엇인지 모르는 무식한 형태인 것이다. 좌파들은 그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회 혼란을 부추기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날 뛰고 있다.

정부는 한국정치의 성장을 위해 국정원을 옛 안기부와 같은 강력한 조직으로 다시 만들고 모든 분야에 숨어 있는 좌파 종북세력을 찾아 척결해야 한다. 국정원은 기관 단체 출입을 제한시킨다는 내용은 철저히 되어야 한다. 강력한 힘이 없이는 안정 사회를 이룰 수 없는 것이다.

대통령은 강한 의지로 사상 측면에서 대국민 담화를 해주신다면 국민들은 큰 힘을 얻을 것이다. 아무 말 없이 사회 안정은 어려운 것이다. 정치를 알지 못하는 젊은 세대들은 이석기 사태를 비롯한 공산세력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면 그렇게 해도 괜찮구나 하는 인식의 틀을 형성해 줄 수 있다.

대통령께서는 우리사회에서 공산주의는 한치의 허용이 없으며 앞으로 간첩을 비롯한 종북세력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 색출하여 강력히 조치 한다는 대통령의 특별 담화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서영웅 목사

퓨리坦 정교회  
본지 상임이사



## 경찰청, 사건청탁 제로(Zero)화 추진

경찰청에서는 수사과정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해 사건청탁 제로(Zero)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 먼저,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고소인, 피고소인 등 사건관계자와 사적인 만남을 금지하고, 업무적으로 만나는 경우에도 공개된 장소인 경찰관서 내에서만 되도록 접촉 장소를 제한하였는데, 이는, 국회 계류 중인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하 부정청탁 금지법)에 비해 제재가 더욱 강화된 것이다.

사건관계인 접촉금지 세부 내용 사건관계인의 범위 "고소, 고발, 진정, 피단속(유해업소, 음주, 무면허 등), 교통사고조사 당사자" "위대상자의 변호인 및 관계자 / 법원·단체인 경우 해당 사건관련 업무종사자" "위 대상자와 친족 또는 이해관계에 있는 자 등 포함"됐다. 금지 행위로 업무목적 외 부적절한 사적 만남(식사·술자리·골프 등), 기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채팅·문자·전화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우연히 접촉한 경우

에는 사후신고, 업무상 부득이한 외부접촉의 경우(현장조사 등) 수사서류에 기록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국회 계류 중인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하 부정청탁 금지법)에 비해 제재가 더욱 강화된 것이다.

또한, 수사담당자와 4촌 이내 친족이나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를 회피하도록 되어 있는 기존 규정을 대폭 강화, 사건관련자와 친분관계만 있어도 해당 사건을 맡을 수 없도록 의무화했다.

# 철원 성소기도원 · 수양관



### 인사말

본 기도원 · 수양관은 나라와 민족의 통일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대한민국 최북단인 철원에 세워졌습니다. 본 기도원 · 수양관은 각종 은혜로운 집회를 개최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체계적이고 영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신 개인 뿐

아니라 단체를 수용할 수 있는 안락한 시설을 갖추고 있고, 또 계속적으로 각종 편의를 위한 시설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다소 먼 거리에 위치해 있지만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통일된 조국을 바라보며 강원도 철원에 성소기도원 · 수양관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세워지고, 예수님의 가정과 교회들이 세워지며, 한 민족 더 나아가서는, 세계 열방에 성령의 불길에 퍼져나가는 데 그 역할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오직 말씀과 기도으로써 예수님을 만나시고 신앙과 생활이 하나가 되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며 대성전 건축과 기도복병 7만 명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소기도원 · 수양관 원장 박정연

### 설기는분들



원장 박정연 목사



이사장 진상영 장로



원목 심웅기 목사



교역자 최영석 목사



### 정기집회안내

| 주일철야               | 화요일철야           | 목요일철야                        | 금요일철야           | 주간부흥성회                          |
|--------------------|-----------------|------------------------------|-----------------|---------------------------------|
| 매주 일요일<br>밤 11시30분 | 매주 화요일<br>밤 12시 | 매주 목요일<br>오전 11시<br>오후 2시30분 | 매주 금요일<br>밤 12시 | 매주 1회 주간집회                      |
| 원장님 인도             | 원장님 인도          | 초빙 목사님                       | 초빙 목사님          | 초빙 목사님<br>연 18회<br>1월 8일은 매주 집회 |

주소 : 강원도 철원군 서면 자동리 산 171번지  
전화 : (033)458-5988, 6633, 7700 서울(02)913-5977, 912-2922  
수련회문의 : (033)458-5988, 6633, 7700 이메일 : holyplace7@gmail.com  
Copyright 2002 성소기도원, 수양관 All Right Reserved.



(1) 기도원 차량으로 오시는 길  
(2) 서울에서 출발하시는 길  
1. 서울에서 출발하신다면 (T-458-8000, www.221.co.kr) 출발  
해와 3시간 30분 소요 시간: 1시간 20분  
지하철 2호선 강변역에서, 4호선구 역을 전 → 동서(종암역) → 원수리(송학역) → 원수리(하) → 택시 → 성소기도원 수양관  
2. 인천(시내)에서 출발하신다면 (033-430-1114) 출발  
해와 3시간 30분 소요 시간: 1시간 30분 / 인천 시내에서 택시 → 원수리 → 신수리에서 하 → 택시 → 성소기도원 수양관  
(033-430-1114) 출발  
3. 서울에서 출발하시는 길  
(033-430-1114) 출발  
3-1. 서울에서 출발하시는 길  
(033-430-1114) 출발  
3-2. 서울에서 출발하시는 길  
(033-430-1114) 출발  
3-3. 서울에서 출발하시는 길  
(033-430-1114) 출발

신물 : 이동경(명) 등등 지니게 된다. 역에서 이동경(명)의 거리는 약 60km.  
1. 이동경(명)의 거리(명)에서 5km 더 이동하면 이동경(명)의 거리는 약 60km.  
2. 이동경(명)의 거리(명)에서 5km 더 이동하면 이동경(명)의 거리는 약 60km.  
3. 이동경(명)의 거리(명)에서 5km 더 이동하면 이동경(명)의 거리는 약 60km.  
4. 이동경(명)의 거리(명)에서 5km 더 이동하면 이동경(명)의 거리는 약 60km.  
5. 이동경(명)의 거리(명)에서 5km 더 이동하면 이동경(명)의 거리는 약 60km.  
6. 이동경(명)의 거리(명)에서 5km 더 이동하면 이동경(명)의 거리는 약 60km.  
7. 이동경(명)의 거리(명)에서 5km 더 이동하면 이동경(명)의 거리는 약 60km.  
8. 이동경(명)의 거리(명)에서 5km 더 이동하면 이동경(명)의 거리는 약 60km.  
9. 이동경(명)의 거리(명)에서 5km 더 이동하면 이동경(명)의 거리는 약 60km.  
10. 이동경(명)의 거리(명)에서 5km 더 이동하면 이동경(명)의 거리는 약 60km.





총회장 이규필 목사



## 합동보수 제98회 총회장에 이규필 목사 추대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보수)총회가 지난 9월26일 오후 2시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소재 동천교회(이규필 목사시무)에서 개최되어 증경총회장 이규필 목사를 제98회 총회장에 추대했다.

증경총회장 이규필 목사의 인도로 1부 예배가 시작되어 부서기 임상국 목사의 기도, 회의록서기 주지광 목사가 롬8:28절을 봉독하고, 이규필 목사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총회"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 목사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라며 참여한 총대들을 환영하고 격려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 위에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이상적인 총회, 이상적인 노회, 이상적인 교회를 비전을 갖는데 있다고 했다.

또한 이 증경총회장은 '사람은 희망이 있을 때, 삶의 의욕이 생기고, 힘이 솟는다고 말하고, 꿈을 갖고 우리가 목표를 지향해 나간다면 모두가 협력과 조화를 이루어 열매를 맺는 큰 총회로 새롭게 도약할 것을 믿는다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총회 이상적인 총회로 바로 서 가는데 우리모두가 뜻을 같이하여 총회발전에 힘써 줄 것을 피력했다. 이어 총무 조영만 목사의 광고가 있었으며 이규필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어서 증경총회장 서동기 목사의 집례로 성찬예식이 거행되고, 전예회 목사(서인노회 증경노회장)가 기도를, 집례자 서동기 목사(증경총회장)는 고전 11:23~29절을 봉독하고 "성찬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아울러 분별

위원 한기장 목사, 분찬위원 김관호 목사가 맡았으며 집례자의 축도로 마쳤다.

이어 증경총회장 이규필 목사의

회를 전형위원으로 선정하여 다음과 같이 제98회기 신 임원을 발표했다.

총회장 이규필 목사(동천교회),

있었다. 이어 각부보고 및 신안토의를 가졌으며, 그 외 모든 업무는 임원회에 일임하고, 총회장 이규필 목사는 히11:1~2절을 봉독하고 '신앙의 선진들처럼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는 총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폐회예배를 끝으로 총회장의 축도로 성총회를 마쳤다.

이날 예정합동보수총회는 다음과 같이 다짐했다.

1. 하나님 마음에 드는 회원과 총회가 되도록 하다. 2. 회원 간에 화합과 결속을 갈기로 하다. 3. 회원들의 아픔을 보듬어 주는 총회와 노회가 되도록 하다. 4. 신학과 뜻이 같은 회원을 받기로 하다.

한편 한중노회는 두툽한 타일을 총대에게 증정하고, 동천교회는 경기도 이천에서 농사한 고구마를 총대 전원에게 한 포씩 선물을 안겼다.

###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상적인 총회로 새롭게 도약하자

사회로서 박용순 목사(서인증경노회장)의 기도로 정기총회가 개최되고, 순서에 따라 임원선거에 들어가 증경총회장 이규필 목사, 서동기 목사, 광유신 목사(경남노회), 임상국 목사(대구노회), 전예회 목사(서인노회), 조경일 목사(한중노회), 김영국 목사(호남노

부총회장 강대일 목사, 서기 임상국 목사, 부서기 주지광 목사, 회의록서기 서재식 목사, 부회의록서기 허봉도 목사, 회계 송인섭 장로, 부회계 이점수 장로, 총무 조영만 목사 등이 선출되어 휘장 분배로 신·구 임원 교체가 있었으며 총회장 이규필 목사의 인사



### 2013년 9월 총회 주요 결의, 총 정리

### 인터콥 총 4개 교단서 규정, 두날개 · 이광복 · 베리칩은 더 연구



최바울 목사

2013년 총회 도막을 내렸다. 이번 총회 때는 다른 해보다 많은 이단 문제를 다뤘다. 재심의 전성시대라 할 만큼 재심요청도 많이 들어왔다. 이를 처리하기 위해 각 교단이 많은 에너지를 쏟았다. 사과 · 회개의 진정성이 보였던 이운호 · 이홍선 목사 등은 해제를 받기도 했고 그 진정성을 인정받지 못한 대상은 기존 규정이 유지되기도

했다. 올해 총회에서 다룬 이단 및 연구 단체 안건 중 가장 뜨거운 이슈는 인터콥(최바울 대표)이었다. 지금까지 인터콥에 대한 교단의 공식 규정은 예상 통합측 한 곳으로서 2011년 96회 총회에서 '예의주시' 규정한 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올해 총회에서 예상합동, 합신, 고신에서 문제 시했다.

일간지 신문에 지속적으로 광고 공세를 펼치는 전능신교(일명 동방번개파)에 대해 2개 교단에 이단 규정을 했다. 한국교회를 어지럽히는 현상으로 '베리칩'이 거론된 것도 주목된다. 1년 동안 긴장하고 있어야 할 인

물 · 단체도 생겼다. 두날개 권권런스와 이광복 목사다. 합신측이 두날개에 대해, 고신측이 이광복 목사의 종말론에 대해 1년 더 연구한 후 2014년 보고기로 했다.

이단옹호 등의 행적으로 문제가 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 대해 예상 합동측은 행정보류 결정을 했다. 또한 다락방 영입에 관련된 한기총의 교단 파송 인사들도 조사처리위원 5인을 선정해서 처리기로 결정했다. 다음 도표 중 통합 · 합동 · 합신은 98회 총회, 고신만 63회 총회다.

도표로 정리한 2013년 9월 총회 주요 규정 총정리는 자세히 (www.jtntv.kr) 볼 수 있다.

정윤석기자 unique44@naver.com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보수)총회 제98회기 신임원

### 새롭게 도약하는 합동보수 한마음으로 성장하는 총회로!

총회장 이규필 목사  
동천교회부총회장 강대일 목사  
평안교회서기 임상국 목사  
천복복지교회부서기 주지광 목사  
사천대국교회회의록서기 서재식 목사  
풍성한교회회의록서기 허봉도 목사  
서광교회회계 송인섭 장로  
양문교회부회계 이점수 장로  
천복교회총무 조영만 목사  
시온교회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보수)총회사무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151-47 (동천교회) ☎(02)496-0191, 496-0181(FAX)





## ‘에클레시아어린이선교합창단’ 찬양으로 영광

예장(합동)제98회

총회에서 찬양으로 섬겨

대한예수교장로회 제98회 총회가 2013년 9월 23일(월)부터 27일(금)까지 경기도 화성에 위치하고 있는 수원과학대 라비돌리조트 신텍스컨벤션에서 열렸다. 총회 산하 각 노회 및 소속 지 교회와 총대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집된 총회 기간 중 삼일 쉼 되는 25일(수) 저녁 예배는, 세계 여러 나라에 파송되어 있는 교단 소속 선교사들이 함께 참석하여 선교 동향과 보고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이날 드려지는 예배 중에 수원 송원교회(원로목사 오병욱, 담임목사 윤상원)에 소속 되어 있는 “에클레시아 어린이선교합창단”(단장 신성경)이 특별 출연하여, 〈언제나 주를 찬양〉이란 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1,200여명이 모인 예배 자리에서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참석한 많은 사람들은 숙연한 모습으로 선교합창단 아이들의 은혜로운 찬양을 함께 공감하며, 찬양이 끝나자 아낌없는 박수로 격려해 주었다.

에클레시아 어린이선교합창단(지휘 이영림, 반주 송지선)은 매

년 총회에서 주관하는 전국찬양경연대회에서 5회에 걸쳐 대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합창단으로서, 국내 연주는 물론 해외선교 연주 등, 총회산하 주요 행사나 각종 문화 행사를 초대되어 활발하게 연주 활동을 하고 있다.

또 합창단에서는 합창단 어린이들이 많이 부족 하지만 어느

곳 이든 연주 기회가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달려가 하나님을 찬양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올 해 12월에 갖게 되는 “크리스마스 뮤지컬” 연주 준비를 위해 연습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에 모든 관심 있는 성도 여러분들의 후원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말도 잊지 않았다. (문화부장 송춘식 기자)

## 한반도 평화, 희망나눔 세계기도대성회

세계교회 60여 개국 2000여 영적지도자들 한 자리에 강사 조용기 목사

전 세계 60여 개국의 2000여 명의 영적지도자들과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희망나눔 행사로 세계기도대성회가 오는 11월 서울 삼양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되며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 담임 이영훈 목사, 리처드 로버츠, 에드윈 알바레스, 울프 에크만, 필 프링글 등이 강사로 나서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된다.

한반도 평화와 세계교회를 향한 희망나눔 세계기도대성회는 ‘꿈과 희망’이란 주제로 한국교회와 사회, 세계 각국 등에 그리스도의 평화와 사랑, 성령의 능력이 임할길 위해 기도할 예정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대회장 이영훈 목사는 “2013년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의 상황에 가장 필요한 것은 꿈과 희망”이라며 “오늘날 지구촌은 세계적인 경제 불황의 장기화, 크고 작은 전쟁과 분쟁의 위협, 사회, 경제적인 양극화, 흉악한 범죄들, 미증유의 자연 재해 등으로 인해 현재와 미래의 삶에 대해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사로 잡혀 있다”는 이때 “아무



아울러 이영훈 목사는 “기도회를 통해 한국교회가 새로운 영적 지도력을 갖추고 이 땅의 국민들과 일천 그리스도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공급하는 소망의 발전소가 되

기를 원한다”면서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그리스도의 평화와 사랑,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회장 이영훈 목사는 “이번 성회에는 8만 여명의 성도와 세계교회 주요 관계자 1백여 명도 참석할 예정에 있다”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기도대성회의 취지는 ‘한 끼의 기적’ (세상의 희망을 7하다)이라는 희망 나눔 행사도 계획하고 있다. 이미 성도들은 지난 8



월 23일부터 10월 4일까지 한 주에 한 끼씩 총 7번의 금식을 선포하고 사회취약 계층을 돕는데 뜻을 두고 있다.

아울러 사회취약계층 지원 범위는 다문화가정, 북한 아동, 해외 빈곤 아동들을 돕게 되며, 국제사 영역에서 계획하고 있는 11월 셋째 주 ‘다문화 축제’, 12월 초 공공기관의 성금 모금 행사까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나눔의 장으로 이어가는데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이날 본부장 김광덕 목사는 “북한아이들은 우리의 아이들이다”면서 “언제나 마음에 품고 기도를 하며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하고, 이어 “현재 평양에 건축 중인 조용기 목사 기념 심장병원도 70%정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라면서 “경색 분위기가 완화되면 곧바로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기도대성회는 여의도순복음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참여하는 성회로 개최될 예정이어서 기대가 된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2013년 9월 현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약 50억 원을 사용되었으며, 출산 장려운동을 위한 자금도 2-3억 원을 지원 하는 등 국가 정책에 호응하고 있으며, 이번 세계기도대성회는 2년 후 2015년에도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 종교개혁 496주년 기념포럼 개최

미래목회포럼 10월 11일 기독교연합회관에서

10월은 교회력으로 종교개혁을 맞이하는 달이다.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뤼텐베르크 성당에 95개 조항의 면죄부 판매에 항의하며 개혁의 글을 내걸었다. 이를 계기로 세계사를 바꾸는 거대한 개혁의 흐름이 일어난 것이다.

496년전 루터와 칼빈이 주도한 교회개혁운동은 역사의 소용돌이를 불러 일으키며 전 세계의 역사의 방향을 바꿔놓았다. 새로운 교회가 탄생하고 문화의 지평을 바꾸고 민주 사회의 초석이 되었다. 그야말로 루터의 종교개혁은 대단히 성공적이었다.

그 종교개혁의 정신을 계승한 것이 오늘날 개혁교회이며 이러한 정신을 되새기며 기념하고자 미래목회포럼은 다음달 11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 17층 강당에서 종교개혁 496주년 기념 포럼을 ‘오늘의 교회개혁과 사회변혁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기념 포럼을

개최한다.

이 날 주제발표에는 장신대 임희국 교수(장신대)가 ‘교회와 사회를 개혁한 16세기 스위스 취리히 종교개혁’을, 김성건 교수(서원대)가 ‘종교개혁과 종교의 사회적 역할’을, 이상규 부총장(고신대)이 ‘종교개혁과 한국교회 갱신’이라는 발표를 하게 된다. 이날 논찬에는 이윤재 목사(한신교회), 정종훈 교수(연세대) 등이 나서, 열띤 토론을 전개할 예정이다.

지난해 미래목회포럼은 종교개혁 495주년을 맞아 5대 개혁파제로 △무자격 목사안수 남발 △대형교회 세습금지 △교단 총회에서 드러난 비윤리적이고 도덕성을 상실한 행위 △연합기관의 빚나간



오정호 목사

이단은쟁 △두 개의 찬송가 발행 등을 제시하여 한국교회에 큰 경종을 울린바 있다.

미래목회포럼의 정기포럼은 매년 분기별로 열리며 해를 거듭할수록 연료를 더하며 한국교회의 이슈인단, 연합과 일치, 대안 모색 등으로 향후 한국교회의 방향성 설정에 있어 개혁운동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향후 10주년을 주도할 미래 대안세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초청인 오정호목사는 “종교개혁의 달을 맞아 종교개혁자들의 개혁정신을 오늘에 되살리며, 한국교회의 개혁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포럼에 동역자님들과 함께 개혁신앙, 개혁교회의 불씨를 되살리고 싶다”고 밝혔다.

미래목회포럼은 2003년 12개 교단 300여명의 개혁신앙을 가진 중견 목회자와 33여명의 각계 전문가그룹인 정책 자문위원들로 구성되어 지난 10년 동안 한국교회의 싱크탱크 역할을 감당하며 한국사회와 교회현안 연구, 모니터링 및 학술활동을 전개하고 정기포럼과 컨퍼런스 등을 매년 가져 왔다.

## 캄보디아 심장병 환자 170여명 수술 축하행사

사단법인 밀알심장재단

사단법인 밀알심장재단(회장 이정재)는 9월 18일 추석 주간에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심장병 수술을 받은 170여명의 심장병 환자 수술 축하 행사를 가졌다.

밀알심장재단은 캄보디아의 죽어가는 심장병 환자들을 위하여 2005년 캄보디아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2006년 한국으로 폰소피아 심장병 어린이를 초청 수술 후 본격적인 초청 수술을 하던 중 캄보디아에 대한민국의 우수한 심장병 수술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가천길병원과 협의 후 2007년 캄보디아 하트 센터에 한국 의사 최초로 심장 수술을 실행하여 당시 프랑스의 의사들이 수술하여 성공하지 못한 어려운 복잡형 심장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5년 동안 100명의 심장병 환자를 수술하기로 시작한 캄보디아 수술이 이제 6년이 지나 170여명을 수술하여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밀알심장재단은 1987년 시작하여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인도 베트남, 몽골,인도네시아 코소보,이라크, 캄

보디아,이집트,스리랑카 등 전 세계 2500여명에게 새 생명을 전하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외국에서의 한국 기업들과 한국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작년에는 캄보디아 국왕이 수여하는 최고 훈장을 비롯하여 각 나라에서도 고마움을 전하고 있다.

금번 밀알심장재단 (회장이정재) 인사말에서 “밀알심장재단은 캄보디아에 새 생명을 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곳 캄보디아뿐만 아니고 전 세계의 모든 밀알심장재단에서 수술 받은 환자 여러분들을 우리는 가족으로 생각하고 내 아이처럼 계속 교육하고 성장시켜 이 나라에 정치인으로 사업가로 교육자로 성장 시킬 것입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여러분들의 아이들에게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으면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후원자들과 밀알심장재단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손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캄보디아 프놈펜 갈뎡병원장(Prof. Chheang Ra)은 “대한민국 밀알심장재단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 캄보디아에 와서 변함없이 심장병 환자를 수술해주고 대한민국의 우수한 심장 기술도 전수해

주어 이 나라의 심장병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신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심장병 환자들이 밀알심장재단과 갈뎡 병원을 통하여 수술받기를 원합니다. 이 곳 캄보디아에 오신 밀알심장재단과 총재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캄보디아 김한수 대사는 “대한민국을 빛내주시는 밀알심장재단 이정재 총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이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발전하였는데 밀알심장재단과 같이 민간단체에서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캄보디아는 우리 나라와 같이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해하고 협력하기에 매우 유사 한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밀알심장재단을 통하여 이 캄보디아의 어렵고 힘든 질병으로 고통 받는 수많은 심장병 환자 가정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뿐 만 아니고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성장 한다는 것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뿌듯합니다. 또한 오늘 행사는 캄보디아에서 수술 받은 청년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사회를 보는 뜻 깊은 모습에 감동이 됩니다. 민간 외교로 대한민국을 알리는 밀알심장재단 이정재 총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금번 행사를 축하드립니다”라고 말했다.

# 영종도 하늘애찬

## 동충하초 오리요리 전문점

032-752-5292

010-5420-0153

예/약/및/문/의/전/화



소문난 하늘애찬은 친절과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www.하늘애찬.kr)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영종도 대교를 지나 인천시 중구 운남동을 들어서면 한번 가면 다시 찾는 소문난 맛집, 최고의 맛 집이 있다. 그 유명한 보양식 동충하초 오리요리전문점 하늘애찬... 입구에서부터 주변경관이

ուն치 있는 풍경과 정갈한 인테리어로 손님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게다가 깔끔한 음식식씨는 미식가들의 환호와 찬사가 끊이지 않는 하늘애찬 동충하초 오리요리전문점(사장 서명희 여사), 170여석을 갖추고 30대의 주차가 가능한 친절하고 서비스로 손님을 최고의 VIP로 모시고 있는 소문난 맛집(www.하늘애찬.kr)입니다.

동충하초가 들어간 오리요리는 그 효능이 뛰어나고 맛과 조화를 이룬 보양식으로 소문이 나 있다. 당뇨와 성인병예방에도 효과가 있고 아무리 먹어도 물리지 않은 이로운 고기라고 자부합니다. 동충하초(冬蟲夏草)의 효능에 대해 위의 기사내용을 꼭 한번 읽어 보세요.

대표 서명희 기사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348-11  
전화 ☎ 032-752-5292 HP 010-5420-0153(사장 서명희)  
사업자 등록번호 : 121-18-32838 www.하늘애찬.kr



# WCC부산총회 반대운동 연대 WCC항의방문 출국

송준길 목사(WCC부산총회 반대운동 연대 위원장)는 wcc항의방문단 7명과 카메라 기자 1명과 함께 8명을 파송하고, 3일 오전 11시 인천공항에서 파송예배를 드렸다.

이번 파송은 wcc의 실체를 경유하는 각 공함에서 기자회견을 빌려서 전 세계에 알리고 wcc본부에 가서 한국교회의 wcc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함께 100만인 서명원본을 제시하여 wcc부산총회 철회를 강력 촉구하기 위하여 파송하게 되었다.

또한 wcc부산총회 반대운동 연대는 지난 10월1일 광주 안디옥교회(통합측, 박영우 목사사무)와 광주 겨자씨교회(나학수 목사사무)를 차례로 방문하여 통합측과 활동측이 광주지역에서 개최되며 wcc부산총회 반대집회를 1차는 안디옥교회에서 10월 6일에 있을 예정이며 규모는 3천 명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광주겨자씨교회에서 열리는 WCC부산총회 반대집회 10월 13일 갖는데 합하고, 참석 규모는 6천 명을 예상하고 있다. 이는 한국교회의 큰 역사가 아닐 수 없다. 광주 안디옥교회(통합)측 박영우 목사는 wcc부산총회 반대운동 연대가 주장한대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wcc부산총회 반대연대에 가담하여 겨자씨교회의 나학수 목사와 함께 손을 잡고 wcc 반대집회에 합류하게 되었다.

이 여세를 몰아 wcc부산총회를 대응하기 위해 기획하고 있는 wcc부산총회 반대운동연대는 광주 안

디옥교회(통합)와 광주 겨자씨교회(합동)를 연차로 연합하여 wcc부산총회 철회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이끌어낸 결과를 준비위원장 송준길 목사는 밝혔다.



## 순장총회 총회장 지태영 목사, 부총회장 이재성 목사 유임

1.WCC부산총회 개최, 2.동성애, 3.세습, 4.목회자 세금문제 등 반대

대한예수교장로회(순장)총회는 지난 24일 서울시 관악구 신원동 소재 신원예담교회(이재성 목사)에서 제61회기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현 총회장 지태영 목사, 부총회장 이재성 목사가 유임됐다.

예장순장총회는 개회에 앞서 총회장 지태영 목사 인도로 1부 예배가 시작되어 부총회장 이재성 목사의 기도가 있는 후 지 총회장은 행 9:31절을 봉독하고 "수가 더 많아지는 총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한 후 성찬식을 집례하고 손근수, 전종우 목사가 성찬위원을 맡은 가운데 거행되었다. 이어 회의록서기 김일수 목사의 광고와 총회장의 축도로 예배와 성찬식을 마쳤다.

이어 총회장 지태영 목사의 사회로 장로부총회장 박종선 장

로가 기도 하고 제61회기 정기총회가 개최되어 순서에 따라 각부 보고가 있는 후 임원 선거에 들어가 새롭게 선출된 제61회기 임원은 다음과 같다.

총회장 지태영 목사(한빛전원교회), 부총회장 이재성 목사(신원예담교회)가 유임되고, 장로부총회장 이석재 장로(동천교회), 서기 김일수 목사(동신교회), 회의록서기 이준호 목사(겨자씨교회), 회계 박장복 장로(영암교회), 부회계 최명철 장로(성산교회), 시찰부장 강



총회장 지태영 목사

철 목사(대전교회), 부부장 박대근 장로(송덕교회), 선교부장 손종필 목사(늘푸른교회), 부부장 손근수 목사(새소망교회), 부부장 박정수 장로(안전교회), 교육부장 서정환 목사(안전교회), 부부장 김영대 목사(영암교회), 고시부장 지태일 목사(새빛중앙교회), 재단관리부장 추영조 장로(신원예담교회), 부부장 정병수 장로(창대교회), 재관국장 서명범 목사(공덕교회) 등이다.

한편 순장총회는 오세아니아 5개 지역 호주, 뉴질랜드, 등에 노회를 신설했으며, 총회장 지태영 목사는 인터뷰에서 교단정책 가운데 1.WCC 부산총회 개최 반대, 2. 동성애 반대, 3. 세습반대, 4. 목회자 세금문제 등을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 피종진 목사 10월 국내·외 성회 일정



피종진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서울중앙교회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88  
010-5255-7777  
jongjin7777@gmail.com  
TEL : 023941-9191  
FAX : 023941-7770

9.30(월)~2(수) 신안산교회(배진구 목사) ☎(031)406-6211  
3(목)~4(금) 서울 소망교회(연인애 목사) ☎ 010-2711-7777  
6(주)~9(수) 구미 삼오교회(김승동 목사) ☎(054)465-2110  
10(목) 저녁 세계선교협의회(홍재 유동근 목사) ☎ 010-4347-0065  
14(월)~16(수) 광주 반석교회(나병하 목사) ☎(062)269-1077  
19(토) 오전 서울 명동 프린스호텔(주최: 세계선교연대)  
20(주)~23(수) 서울 할렘루아산교회(원도희 목사) ☎(02)464-7379  
25(금) 철야 안양 갈멜산금식기도원(담임 조성근 목사) ☎(031)472-7212  
28(월) 오전 전국목회자정성컨퍼런스(총재 강태원 목사)  
장소: 서울 중흥교회(엄신형 목사) ☎(02)476-7131  
28(월)~29(화) 전국목회자시모세미나 ☎(041)852-2211  
장소: 세종 평화의동산(원장 피종진 목사)  
28(월)~31(목) 구성 새희망교회(전재춘 목사) ☎(031)258-1793  
29(화) 오후 기도지유아카데미(이사장 피종진 목사, 원장 장요한 목사)  
장소: 서울 템버전센터 ☎ 010-2788-9709

## 예장고려(총회) 제63회기 총회장에 천 환 목사 당선

부총회장 원현호 목사 선출, 총무 김장진 목사



고려 총회장 천 환 목사

카데미캠퍼스(문산)에서 제63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총회장에 천환 목사(경인노회·인천 예일교회)를

예장고려 총회는 지난 달 24일부터 26일까지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파산서원길 64-68 고려신학교아

선출하고, 원현호 목사는 부총회장에 당선됐다. 고려총회는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하박국3:2)라는 표제어에 24일 저녁 7시30분 개회예배와 임원 선거로 신구임원교체가 있는 후 성찬식과 목사임직 및 고려신학교 교수 박사학위 취득기념 감사예배가 순서에 따라 진행되었다.

이날 제63회기 신입총회장 천 환 목사는 취임사에서 "년 동안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종으로서 헌신하는 역할을 감당하고자 한다"며 "임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교단을 이끌어 가겠다"며 다짐했다.

또한 천 총회장은 "교단이 난국을 만난 현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긍휼을 구해야 한다"며 "총회장으로서 선배님들이 닦아놓은 터전 위에 고려파의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하고, 진리를 파수하는 역할

을 충실히 감당해 나가겠다"는 신념으로 "이 일을 위해 총회원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결속해 주길 바란다"며 당부했다.

아울러 총회장 천 목사는 "끊임없는 변화와 함께 새 부흥의 시대를 준비하길 바란다"면서 "작지만 아름답고 건강한 교단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며 포부를 밝혔다.

고려총회 제63회기 임원은 다음과 같다.



총회장 천 환 목사, 부총회장 원현호 목사, 서기 이상봉 목사, 부서기 허효성 목사, 회의록서기 안홍수 목사, 부회의록서기 이동준 목사, 회계 원종권 장로, 부회계 신태석 장로, 총무 김장진 목사 등이다.

# 소진우 목사 2012년-2013년 성회일정

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교회와 동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담임목사 소진우 목사  
PASTOR SO JIN WOO  
H·P : 010-8753-7179  
교회 : 02)3391-9676(대)

- 라이즈월드미션 총재
- 극동방송칼럼리스트
- 백성TV칼럼리스트
- 지저스타임즈 사장
- CTS 칼럼리스트
- 예복교회 담임

**2012년 1월**  
2-4 전성교회(김영목사)  
6 오산리금식기도원(조희연원장)  
9-11 온사랑교회(최태식목사)  
13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6-18 신성교회(정대호)  
19 성산수양관(윤호균원장)  
22 전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23-26 광운기도원(김한배원장)  
29 예제교회(류종모목사)  
30-1/2 한울교회(송우중목사)

**2012년 2월**  
6-9 갈렙산기도원(이목원원장)  
12 예수소망교회(신동진목사)  
13-15 전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16 신갈산기도원(이광수목사)  
19-22 성산수양관(윤호균목사)  
27-29 중평평교회(고영철목사)

**2012년 3월**  
**축복대시방**  
5-7 수원교회(강성우 목사)  
18 전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22 갈렙산기도원(임예제원장)

**2012년 4월**  
2-4 하예성교회(김대중목사)  
5-6 성수기도원(박정연원장)  
9-10 정기노회  
15 전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16-18 동라제자들과교회(이석원목사)  
23-25 주자리교회(김주환목사)  
27 갈렙산기도원(임예제원장)

**2012년 5월**  
31-3 전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7-9 우리교회종은교회(이평천목사)  
13-16 성신교회(송양도 목사)  
21-24 광운교회(김동기목사)

**2012년 6월**  
3-6 주천양교회(윤병구목사)  
7 갈렙산기도원(임예제원장)  
10 전보산기도원(유택진목사)  
12-14 베데스다교회(허영해목사)  
17-30 2주연속심대성회(예복교회)

**2012년 7월**  
2-5 사명지영성원(송오성원장)  
8 전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9-10 신학생여름세미나  
23-26 천문기도원(최정숙원장)

**2012년 8월**  
5 전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8-10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1-16 광운기도원(김한배원장)  
20-23 갈렙산기도원(이목원원장)  
27-30 성산수양관(윤호균원장)

**2012년 9월**  
2 전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3-5 주우리교회(이형구목사)  
10-12 새암교회(김병식목사)  
17-20 교단총회  
24-26 일신제일교회(전창대목사)  
30 전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2012년 10월**  
8-10 신일교회(정병수목사)  
12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5-16 정기노회  
19 성수기도원(박정연원장)  
22-25 진리교회(송대규목사)  
26 갈렙산기도원(임예제원장)  
28 전보산기도원(유택진목사)  
29-31 검단지역독교연합성회(회장:한신원목사)

**2012년 11월**  
3 주왕교회(김홍수목사)  
5-9 선교지방문  
11-14 동서유교회(계동목사)  
19-21 경원교회(이형경목사)  
25 전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26-28 예수비전교회(이승엽목사)

**2012년 12월**  
2-7 부흥성회(예복교회)  
10-15 필리핀선교대회  
17-19 예원교회(한규식목사)  
23 천보산기도원(유정재원장)  
21 갈렙산기도원(임예제원장)

**2013년 1월**  
1-3 과천예복교회(노영수 목사)  
7-9 정암성결교회(강세진 목사)  
10 강남금식기도원(김정광 원장)  
14-16 김신교회(임동환 목사)  
20 천보산기도원(유정재 원장)  
21-23 천문교회(김장식 목사)  
28-30 천문교회(조성민 목사)

**2013년 2월**  
1 한일산기도원(이영금 원장)  
5-7 천보산기도원(강신조 목사)  
11-14 김광기도원(이목원 원장)  
17 광운기도원(김한배 원장)  
18-20 전보산기도원(유정재 원장)  
21-22 광정성결교회(남종우 목사)  
22 갈렙산기도원(임예제원장)  
25-28 임마누엘기도원(이수영 원장)  
비전교회(조정현 목사)

**2013년 3월**  
**축복대시방**  
17 전보산기도원(유정재 원장)

**2013년 4월**  
1-3 광복내교회(김성웅 목사)  
8-11 성산수양관(윤호균 원장)  
14 천보산기도원(유정재 원장)  
15 정기노회  
15-16 천보산기도원(유정재 원장)  
22-25 주우리교회(이규용 목사)

**2013년 5월**  
3 C채널 TV예배  
6-8 참사랑교회(강신조 목사)  
11 주왕교회(김홍수 목사)  
13-15 신일교회(정병수 목사)  
17 갈렙산기도원(임예제 원장)  
19-6월1 2주 연속 특별 십자기도회

**2013년 6월**  
3-5 한일산기도원(이영금 원장)  
10-13 온사랑교회(최태식 목사)  
14 오산리금식기도원(국해원 원장)  
17-19 나눔예교회(최종대 목사)  
20-21 국내미지교회 순방  
24-27 천주기도원(김신수 원장)

**2013년 7월**  
1-3 은혜교회(유관재 목사)  
7 전보산기도원(유정재 원장)  
8-10 삼산교회(신승종 목사)  
15-19 선교지신학여름특강  
21-27 예복교회 특별기도성회(담임 소진우 목사)  
28 새계영교회(차영아 목사)  
29-31 한기연교인연합수련회

**2013년 8월**  
2 한일산기도원(이영금 원장)  
3 갈렙산금식기도원(임예제 원장)  
4 전보산기도원(유정재 원장)  
5-8 금산임마누엘수양관(이수영 원장)  
12-15 광운기도원(김한배 원장)  
19-22 갈렙산기도원(이목원 원장)  
26-29 천문기도원(최정숙 원장)

**2013년 10월**  
4 노회선교위원회예배  
7 대진미디어예배  
7-9 뱀벌교회  
14-15 정기노회  
17 부흥사역수원특강  
20 전보산기도원  
21-23 인천성산교회  
27 선교사파송예배  
28-30 판암장로교회